

서울시민의 행복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고준호 백선헤 안기정 심아름 이유미

**서울시민의
행복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책임

고준호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 연구조정실장

연구진

백선훈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심아름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 기획팀 연구원

이유미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 기획팀 연구원

외부 참여 연구진

김영훈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송 민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연구개요	2
1_서울시민 행복증진 방안 모색의 필요성 대두	2
2_서울시민의 행복 요인 연구	3
3_서울시민의 행복 찾기	5
02 서울시민의 행복 수준과 행복 요인	12
1_연구개요	12
2_서울시민의 행복 및 주요 영역별 만족 수준	15
3_서울시민의 행복 예측 요인	22
03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한 서울시민 행복	38
1_연구개요	38
2_데이터 분석	42
3_결론 및 시사점	57
04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출근 직장인의 행복	62
1_서론	62
2_연구결과	68
3_출근시간 행복 증진 방안 및 시사점	79
부록	83

표

[표 1-1] ‘행복한 서울 만들기’ 학술세미나 프로그램	4
[표 1-2] ‘서울형 행복연구 지원사업’	5
[표 1-3] ‘행복을 드릴까요? 서울시민의 행복이야기’ 프로그램	9
[표 2-1] 서울시민의 개인 요인과 행복 수준의 상관관계	22
[표 2-2] 서울시민의 가정 요인과 행복 수준의 상관관계	23
[표 2-3] 서울시민의 사회 요인과 행복 수준의 상관관계	24
[표 2-4] 서울시민의 환경 요인과 행복 수준의 상관관계	25
[표 2-5] 행복에 대한 핵심 요인의 다중회귀분석	27
[표 2-6] 행복에 대한 핵심 요인의 다중회귀분석의 성차	28
[표 3-1] 행복 관련 키워드 상위 30개	42
[표 3-2] 불행 관련 키워드 상위 30개	43
[표 3-3] 행복, 불행 관련 공통/차이 연관어	51
[표 3-4] 가정환경, 식생활, 문화여가 영역의 토픽 간 비교	54
[표 3-5] 주거, 교육, 정치 영역의 토픽 간 비교	55
[표 3-6] 여행과 건강 영역의 토픽 간 비교	56
[표 4-1] 전체 응답자 특성	68
[표 4-2] 객관적 출근여건 및 주관적 출근여건과 출근시간 행복의 상관 1	75
[표 4-3] 객관적 출근여건 및 주관적 출근여건과 출근시간 행복의 상관 2	76
[표 4-4] 서울시민의 출근시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78

그림

[그림 1-1] ‘행복한 서울 만들기’ 학술세미나	4
[그림 1-2] ‘서울형 행복연구 지원사업’ 공고문	6
[그림 1-3] ‘행복을 드릴까요? 서울시민의 행복 이야기’	9
[그림 2-1] 서울시민 행복 예측 요인 위계적 구성	13
[그림 2-2] 서울시민의 행복 설문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14
[그림 2-3]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 부정 정서	16
[그림 2-4] 전반적 건강 평가	16
[그림 2-5] 재정 상태 만족도	17
[그림 2-6] 월평균 가구 소득	17
[그림 2-7] 가구 총 자산 금액	17
[그림 2-8] 결혼 만족도	18
[그림 2-9] 미취학 자녀 보육 만족도	18
[그림 2-10] 보육 방법별 만족도	18
[그림 2-11] 공교육 만족도	19
[그림 2-12] 자녀 학령별 공교육 만족도	19
[그림 2-13] 전반적 사회적 관계 만족도	20
[그림 2-14]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	20
[그림 2-15] 직장 생활 전반 만족도	20
[그림 2-16] 직장 생활 세부 항목별 만족도	20
[그림 2-17] 대상별 신뢰 수준	21

[그림 2-18] 생활 환경 만족도	21
[그림 2-19] 월평균 개인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29
[그림 2-20] 월평균 가구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29
[그림 2-21] 가구 총 자산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30
[그림 2-22] 소득이 높을 때 소득 만족 중요성 증가	31
[그림 2-23] 자산이 많을 때 결혼 만족 중요성 증가	32
[그림 2-24] 소득이 높을 때 보육 만족 중요성 증가	33
[그림 2-25] 소득이 높을 때 직장 근무 환경 질적 측면의 중요성 증가	34
[그림 3-1] 연구 진행 과정	40
[그림 3-2] 행복 연관어	44
[그림 3-3] 불행 연관어	45
[그림 3-4] 행복, 불행 관련 공통 연관어 - 교육	46
[그림 3-5] 행복, 불행 관련 공통 연관어 - 경제적 활동	47
[그림 3-6] 행복, 불행 관련 공통 연관어 - 의식주	48
[그림 3-7] 행복, 불행 관련 공통 연관어 - 교통	49
[그림 3-8] 행복, 불행 관련 공통 연관어 - 여가	50
[그림 3-9] 행복 토픽 및 단어	52
[그림 3-10] 불행 토픽 및 단어	53
[그림 4-1] OECD 주요국 평균 통근 시간	62
[그림 4-2] 서울시민 출근 통행수단	63
[그림 4-3] 거주지역에 따른 출근시간 행복	70
[그림 4-4] 인생의 전반적 행복과 출근시간 행복의 차이	70
[그림 4-5] 연령에 따른 출근시간 행복	71
[그림 4-6] 소득에 따른 출근시간 행복	72
[그림 4-7] 이용 교통수단에 따른 출근시간 행복	72

01

연구개요

- 1_서울시민 행복증진 방안 모색의 필요성 대두
- 2_서울시민의 행복 요인 연구
- 3_서울시민의 행복 찾기

01 | 연구개요

1_서울시민 행복증진 방안 모색의 필요성 대두

유엔이 발간하는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순위는 2013년 156개국 중 41위, 2015년 158개국 중 47위, 2016년 157개국 중 58위로 행복 순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서울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민체감형 행복정책 발굴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이에, 다양한 관점에서 서울시민이 체감하는 행복 요소를 찾아보고 행복관련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 연구과제를 수행함.

그 첫 번째 연구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는 행복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구해보는 시민참여형 연구과제, ‘서울형 행복연구 지원사업’을 실시함. 서울시 정책과 연계하여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 방안을 연구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 제안을 주제로 시민공모를 하였고, 연구분야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8개의 연구팀을 선정하였음. 수행한 연구결과는 ‘행복을 드릴까요? 서울시민의 행복 이야기’ 발표회를 통해 관심있는 시민들과 공유하였으며, 제기된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체감형 서울시 행복 정책을 제안함.

그리고 서울시민의 행복에 끼치는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학술연구를 진행함. 이를 위해,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서울시민의 행복수준을 측정하고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서울시민 행복수준과 행복요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는 소셜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한 서울시민 행복’ 연구를 수행하였음. 한편, 서울연구원은 서울시민의 상당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한다는 점에 착안해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출근 직장인의 행복’ 연구를 실시함. 학술연구 결과는 ‘행복한 서울만들기 학술세미나’를 통해 시민, 전문가 등과 공유하였으며,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함.

2_서울시민의 행복 요인 연구

1) 개요

서울시민의 행복수준을 측정하고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시민 행복수준과 행복 요인’,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한 서울시민 행복’ 연구를 수행하였고, 시민행복에 영향이 큰 대중교통 분야를 대상으로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출근 직장인의 행복’ 전문가 학술연구를 실시함.

‘서울시민 행복수준과 행복요인’ 연구는 서울시민의 행복 수준과 행복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에 거주 중인 만 30~59세 경제활동 인구 1,878명을 대상으로 행복도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내용은 검증된 척도를 활용하여 행복 수준을 수치화하고, 관련된 심리·사회·환경적 분석조사를 실시하여 세부적인 행복 요인을 측정함.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한 서울시민 행복’ 연구는 서울시민의 행복과 불행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7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서울시 관련 소셜네트워크 데이터를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함. 행복과 불행 요인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여 서울시민의 행복과 불행에 밀접한 주제를 파악함.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출근 직장인의 행복’ 연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서울시 직장인들의 출근 시 대중교통 이용 행태와 행복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서울시 직장인들의 출근시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2) 발표회

2017년 10월 18일 ‘행복한 서울 만들기’ 학술세미나를 위하여 5월 착수, 7월 중간 발표회에서 서울시민의 행복 요인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방향을 설정함.

‘행복한 서울 만들기’ 학술세미나를 통해 서울시민의 행복 요인 분석 결과를 시민, 정책전문가와 함께 공유하고 서울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논의함.

[표 1-1] '행복한 서울 만들기' 학술세미나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5:00~15:05	개회사 축사	김경혜 서울연구원 부원장 김재휘 중앙대학교 교수(한국심리학회 회장)
15:05~15:15	행복한 서울 만들기	김영한 서울시의원
15:15~15:30	서울시민의 행복 수준	김영훈 교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5:30~15:45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한 서울시민 행복	송 민 교수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5:45~16:00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출근 직장인의 행복	고준호 실장 (서울연구원)
16:00~16:10	휴식	
16:10~17:00	종합토론	전문가 토론자 좌 장 김만홍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토론자 지영림 경기도 시흥시 시민호민관 최기홍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성진 서울디지털재단 사무국장 김병수 심리연구소 인사이트 자문교수



[그림 1-1] '행복한 서울 만들기' 학술세미나

3_서울시민의 행복 찾기

1) 개요

서울시민의 체감 높은 행복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형 행복연구’ 지원사업을 시행함. 2017년 4월 공모사업으로 총 8개의 다양한 주제의 시민연구를 선정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지원사업을 운영함. 그리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5월 착수, 7월 중간 발표회에서 시민연구의 내용과 방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함.

2017년 9월 7일 ‘행복을 드릴까요? 서울시민의 행복이야기’ 발표회를 통해 그동안 수행해 온 시민연구의 내용을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현장에서 행복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서울시 행복 정책을 논의함.

2017년 ‘서울형 행복연구’ 지원사업에서 수행해온 시민연구는, 아동부터 시니어까지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 대해 현장감 있는 행복 이야기와 소셜네트워크 분석, 설문조사, 인터뷰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체감 높은 정책을 모색함.

[표 1-2] ‘서울형 행복연구 지원사업’

지원사업명	연구책임자(소속)
위치기반 소셜미디어 자료와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활용한 서울시 행복장소 찾기 연구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원자들의 화학작용, 셰어하우스에 사는 청년들은 행복할까? : 강북구의 자생적 셰어하우스 청년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홍종원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동네가게의 생활 플랫폼 기능을 통한 동네의 행복만들기 연구	김병재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청소년-부모가 함께하는 활동이 관계강화와 행복증진에 미치는 영향분석	최소영 (사)마을탐사단청바지)
스포츠소외계층아동의 소프트스킬 학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스포츠교육과 지역사회 인프라의 연계방안 연구	함은주 (사단법인 스포츠문화연구소)
시니어가 생각하는 ‘나의 노년과 일, 그리고 행복’	최영미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행복한 서울이야기	곽병호 (바른먹거리 실천협회)
회색청년의 행복한 서울살이	차승연 (가재울 발전소)



2017

‘서울형 행복연구’ 지원사업 공모

응모자격	접수기간
서울시민의 행복에 대해 고민하고 열정 있는 개인 또는 단체	2017년 4월3일(월) ~ 4월24일(월) 18시까지
응모내용	접수방법
서울시 정책과 연계하여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 방안을 연구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제안	서울연구원 홈페이지(www.si.re.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자료 업로드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연구책임자 이력서(자유양식) 1부 *최종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접수부문	문의사항
연구과제 및 연구모형 등 다양한 형식	서울연구원 연구조정실 02.2149.1125 담당자 이메일 sar1126@si.re.kr
연구주제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 방안 모색	


I·SEOUL·U

[그림 1-2] ‘서울형 행복연구 지원사업’ 공고문

2) 연구내용

시민공모를 통해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지원사업 총 8개를 선정함.

‘시니어가 생각하는 나의 노년과 일, 그리고 행복’ 연구는 노년의 일자리가 삶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돌봄기동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과 직업경험이 삶에 미치는 만족도를 조사하고, 돌봄분야의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위치가반 소셜미디어 자료와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활용한 서울시 행복장소 찾기 연구’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행복 장소의 유형과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행복 관련 소셜네트워크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서울시민이 행복을 느끼는 위치와 공간 조성 방안을 제안함.

‘청소년-부모가 함께하는 활동이 관계강화와 행복증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는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 삶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마을 가드닝’, ‘마나책방’ 등 청바지(청소년이 바꾸는 지역)활동을 실시하고 활동참여에 따른 청소년과 부모의 행복 변화를 확인함. 또한 집단심층면접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청바지 활동을 통한 청소년과 부모의 행복을 조사하여 청소년과 부모의 행복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함.

‘동네가게의 생활 플랫폼 기능을 통한 동네의 행복만들기 연구’는 지역사회의 행복을 찾기 위하여, 동네가게의 사회적 역할을 활용하여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물건을 나누는 ‘행복나눔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고 동네가게를 활용한 지역사회 행복증진 방안을 검증함.

‘행복한 서울이야기’는 남산동 거주민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하여, 남산동 내에 숨은 역사와 명소 등 다양한 보물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전 세대가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남산동 탐방코스를 소개함.

‘스포츠소외계층아동의 소프트스킬 학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스포츠교육과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방안 연구’는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건강, 삶의 자세 개선과 행복 증진을 위해 스포츠프로그램을 발굴·실행하여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소개하고, 스포츠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내 스포츠프로그램을 제안함.

‘원자들의 행복한 화학작용, 쉼어하우스 청년들은 행복할까?’ 연구는 새로운 청년주거 형태인 쉼어하우스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거주, 문화, 환경에 따른 행복 영향을 분석하여 쉼어하우스가 거주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쉼어하우스 활성화를 위한 공유

방안과 행복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함.

‘회색청년의 행복한 서울살이’ 연구는 정책 수혜 사각지대에 놓인 회색청년(만 35세~39세)의 주거, 대인관계, 경제생활 등 서울생활의 행복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고 회색청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마련을 촉구함.

3) ‘행복을 드릴까요? 서울시민의 행복 이야기’

8개의 지원사업 연구내용을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구체적인 서울시민 행복 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9월 7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행복을 드릴까요? 서울시민의 행복 이야기’ 발표회를 진행함.

시민과 유관 기관, 서울시의회, 서울시 담당자 등이 발표회에 참석하여 8개 지원사업의 연구결과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질문과 토론으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지속적인 시민 행복정책 마련을 위한 관심을 촉구함.

서울시의회 김영한 의원은 ‘위치기반 소셜미디어 자료와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활용한 서울시 행복장소 찾기 연구’로 서울시가 시민이 행복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 이충호 서울형 행복연구 자문위원은 ‘시니어가 생각하는 나의 노년과 일, 그리고 행복’, ‘청소년-부모가 함께하는 활동이 관계강화와 행복증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동네가게의 생활 플랫폼 기능을 통한 동네의 행복만들기 연구’로 노인과 청소년 그리고 지역사회 내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스포츠소외계층아동의 소프트스킬 학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스포츠교육과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방안 연구’로 스포츠소외계층아동과 기업의 연계를 통한 지원을 제안함. 박병관 서울형 행복연구 자문위원은 ‘원자들의 행복한 화학작용, 쉼어하우스 청년들은 행복할까?’, ‘회색청년의 행복한 서울살이’의 연구를 통해 청년들이 함께 거주공간과 삶을 공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시정 지원을 촉구하고, ‘시니어가 생각하는 나의 노년과 일, 그리고 행복’ 연구로 노인의 일자리창출의 필요성과 삶의 질 향상 방안, ‘행복한 서울이야기’ 연구로 서울에 숨어있는 보물장소 체험으로 시민의 힐링 방법 마련 등 다양한 시민체감형 행복이 발굴됨을 밝힘.

[표 1-3] '행복을 드릴까요? 서울시민의 행복 이야기' 프로그램

시간	내용	
14:00~14:03	오프닝	사회자
14:03~14:08	환영사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
14:08~14:11	축사	조상호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14:11~14:15	'서울형 행복연구' 지원사업 소개	사회자
14:15~15:15	연구내용 발표	연구과제 책임자
	SNS를 활용한 서울시 행복장소 찾기	이수기, 박근덕, 이호준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우리 동네가게에는 어떤 행복이 숨어 있을까?	김병재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서울 남촌의 보물찾기	곽병호 바른먹거리 실천협회 김태휘 문화유산연구회 서정화 페어트레블
	일은 나에게 힐링	최영미, 강석금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15~15:35	축하공연 및 휴식	
15:35~16:35	연구내용 발표	연구과제 책임자
	아동의 행복기초기술 - 스포츠 프로그램	함은주, 박지훈, 이현서 (사)스포츠문화연구소
	부모와 자녀가 함께한 행복한 마을활동 기억	최소영, 오미선, 이성미 (사)마을탐사단청바지
	원자들의 행복한 화학작용, 쉼어하우스 청년들	홍종원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박철우 청년엔터테인먼트G협동조합 원석현 서울시립대학교 중국문화학과
	화색청년의 행복한 서울살이	차승연 가재울발전소 김민철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재민 성균관대학교 역사학과
16:35~16:55	발표회 내용 공유	시민 및 전문가자문단 이충호 변호사 박병관 한국심리자문연구소 소장
16:55~17:00	마무리	사회자



[그림 1-3] '행복을 드릴까요? 서울시민의 행복 이야기'

02

서울시민의 행복 수준과 행복 요인

1_연구개요

2_서울시민의 행복 및 주요 영역별 만족 수준

3_서울시민의 행복 예측 요인

연구책임	김영훈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연구진	허청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원
	공해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원
	송은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원
연구자문	이병관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교수
	이은경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조양석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최영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02 서울시민의 행복 수준과 행복 요인

1_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은 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Helliwell & Putnam, 2004). 개인의 행복을 예측하는 사회 환경 요인에는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정책적 요인도 포함된다(Inglehart, 2000; Inglehart, Foa, Peterson, & Welzel, 2008).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선진국에서는 정책 결정을 위한 국가 지표들에 행복을 포함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Diener, Lucas, Schimmack, & Helliwell, 2009).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 확립을 목적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행복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서울시민에 국한하여 검증된 척도를 통해 서울시민의 행복을 살펴본 연구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정책 제안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기초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서울시민의 행복 수준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의 구성

연구내용은 서울시민의 행복 수준과 행복을 예측하는 관련 변인들을 측정하여, 각 변인들 중 서울시민의 행복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민의 행복 수준을 검증된 척도를 통해 수치화하고, 관련된 심리·사회·환경적 변인들을 세분화하여 측정하였다.

행복을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나누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지난 한 달간의 긍정·부정 정서 경험을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를 사용하여 수치화하였다. 삶의 만족도 측정 문항은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나의

삶의 조건들은 매우 훌륭하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만약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 해도, 거의 아무 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로 구성되었다(Diener et al., 1985). 긍정·부정 정서 경험은 지난 한 달 간 “긍정적인”, “좋은”, “유쾌한”, “즐거운”, “행복한”, “만족스러운”과 같은 긍정 정서와 “부정적인”, “나쁜”, “불쾌한”, “슬픈”, “두려운”, “화난”과 같은 부정 정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는지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Diener et al., 2009).

동시에 개인·가정·사회·환경적 요인들을 측정하여 각각의 요인들이 서울시민의 행복 수준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석하였다. 개인 요인으로는 건강과 성격, 가정 요인으로는 배우자와의 관계와 자녀 보육 및 교육, 사회 요인으로는 사회적 관계와 직장, 대인 신뢰, 환경 요인으로는 생활환경에 관한 개인의 생각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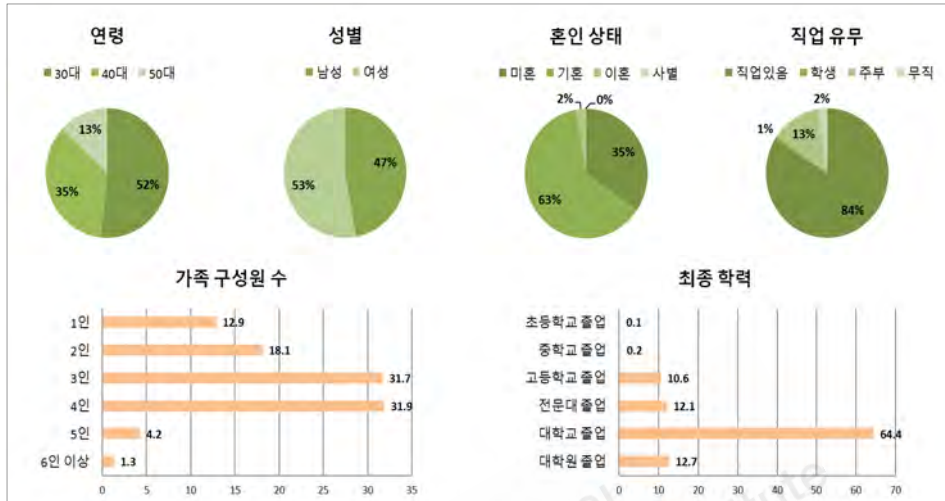
[그림 2-1] 서울시민 행복 예측 요인 위계적 구성

(2) 연구방법

온라인 조사 업체인 데이터스프링 패널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에 거주 중인 만 30~59세 경제활동 인구 1,878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며, 그중 30대가 52.0%, 40대가 35.0%, 50대가 13.0%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47.0%, 여성이 53.0%였다.

응답자 중 63.0%가 기혼, 35.0%가 미혼이었으며, 84.0%가 경제활동에 참여 중이었다.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응답자들 중 70.1%가 정규직 근로자, 4.8%가 임시직 근로자, 7.1%가 자영업 종사자였다.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0.2%, 고등학교 졸업이 10.6%,

전문대 졸업이 12.1%, 4년제 대학교 졸업이 64.4%,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12.7%였다 ([그림 2-2]).



[그림 2-2] 서울시민의 행복 설문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2_서울시민의 행복 및 주요 영역별 만족 수준

1) 서울시민의 행복 수준

(1) 삶의 만족도 수준은 보통에서 조금 불만족하는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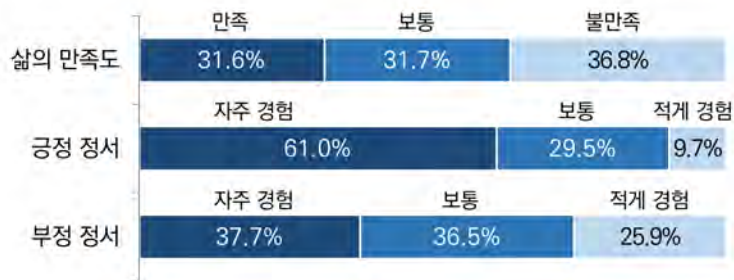
삶의 만족도 평균을 분석한 결과, 1-7점 척도에서 평균 3.8점으로 보통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 = 3.8$, $SD = 1.3$). 삶의 만족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시민의 약 31.6%는 삶에 만족, 약 31.7%는 보통, 약 36.8%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3]). 연령별로는 30대($M = 3.9$, $SD = 1.3$), 50대($M = 3.8$, $SD = 1.4$), 40대($M = 3.7$, $SD = 1.3$)순으로 높았으나, 30대와 40대 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1870) = 3.97$, $p < .05$. 즉, 평균적으로 30대가 40대보다 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다.

(2) 긍정 정서는 자주 경험하는 편이나, 부정 정서 경험률도 높은 편

긍정 정서 분석 결과, 지난 한 달간 긍정 정서 경험은 평균 4.7점으로 보통보다 긍정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편으로 나타났다($M = 4.7$, $SD = 1.0$). 긍정 정서 경험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시민의 약 61.0%가 긍정 정서를 자주 경험, 약 29.5%가 보통 정도로 경험, 약 9.7%가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3]). 연령별로는 50대($M = 4.8$, $SD = 1.0$), 30대($M = 4.7$, $SD = 1.0$), 40대($M = 4.6$, $SD = 1.0$)순으로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40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1870) = 6.10$, $p < .005$. 즉 30대와 50대에 비해 40대가 긍정 정서를 더 적게 경험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한 달 부정 정서 경험은 평균 4.1점으로 보통에 가깝게 나타났다($M = 4.1$, $SD = 1.1$). 그러나 부정 정서 경험 분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민의 약 37.7%가 부정 정서를 자주 경험, 약 36.5%가 보통 정도로 경험, 약 25.9%가 부정 정서를 적게 경험하여 ([그림 2-3]), 서울시민 1/3 이상이 일상에서 부정 정서를 자주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정 정서를 느끼는 정도는 30대($M = 4.2$, $SD = 1.1$), 40대($M = 4.1$, $SD = 1.1$), 50대($M = 3.8$, $SD = 1.2$) 순으로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50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1870) = 10.00$, $p < .001$. 즉 50대가 30대와 40대에 비해

부정 정서를 더 적게 경험했다.



[그림 2-3]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 부정 정서

2) 개인·가정·사회·환경 영역별 만족 수준

(1) 개인 영역: 전반적 건강 평가는 긍정적인 편

전반적 건강 평가 결과, 서울시민은 대체로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 = 4.4$, $SD = 1.2$). 구체적인 분포를 보면 서울 시민의 약 48.7%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만족, 약 29.6%가 보통 만족, 약 21.7%가 자신의 건강에 불만족했으며([그림 2-4]), 연령별로 전반적 건강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림 2-4] 전반적 건강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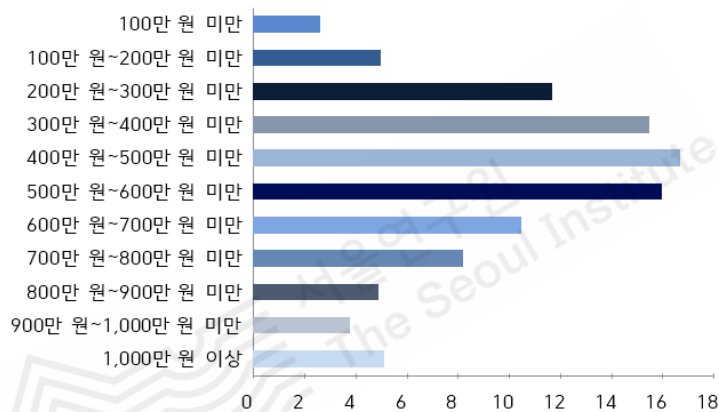
(2) 가정 영역: 재정 상태에 불만족하는 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는 만족

서울시민은 재정 상태에 대해 다소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 = 3.4$, $SD = 1.5$). 서울시민의 약 26.4%가 재정상태에 만족, 약 26.5%가 보통, 약 47.1%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그림 2-5]), 절반 정도가 재정 상태에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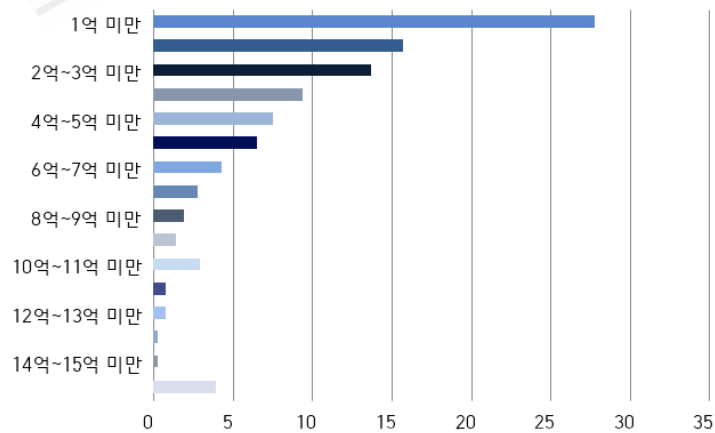


[그림 2-5] 재정 상태 만족도

이번 연구에서 보고된 서울시민의 월 평균 가구 소득 평균은 약 500만 원 이상~550만 원 미만([그림 2-6]), 부채를 포함한 가정의 총 자산 금액 평균은 약 3억 5천 이상~4억 미만 정도였다([그림 2-7]).



[그림 2-6] 월평균 가구 소득



[그림 2-7] 가구 총 자산 금액

서울시민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 = 5.0$, $SD = 1.2$). 결혼 만족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시민의 약 71.4%가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에 만족, 약 18.6%가 보통 만족, 약 9.8%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8]). 연령별로는 30대($M = 5.3$, $SD = 1.2$)가 40대($M = 4.9$, $SD = 1.2$)와 50대($M = 4.9$, $SD = 1.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결혼 만족도를 보였다. $F(2, 1173) = 15.92$,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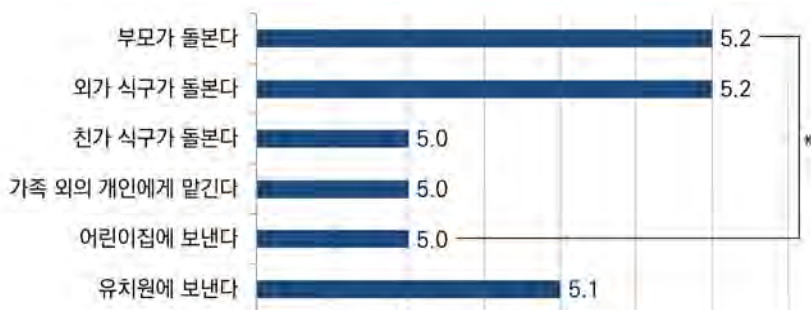


[그림 2-8] 결혼 만족도

또 다른 가정 변인으로 자녀 보육 및 교육 관련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서울시민은 미취학 자녀의 보육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 = 5.1$, $SD = 1.1$). 만족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시민의 약 73.8%가 미취학 자녀의 보육에 만족, 약 18.2%가 보통, 약 8.0%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9]). 한편, 보육 방법별로 상이한 만족도 수준을 보였는데, 부모, 외가/친가 식구 등 가족이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경우($M = 5.2$, $SD = 1.15$)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개인 등의 기관에 맡기는 경우($M = 5.0$, $SD = 1.11$)보다 보육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t(437) = 2.16$, $p < .05$ ([그림 2-10]).



[그림 2-9] 미취학 자녀 보육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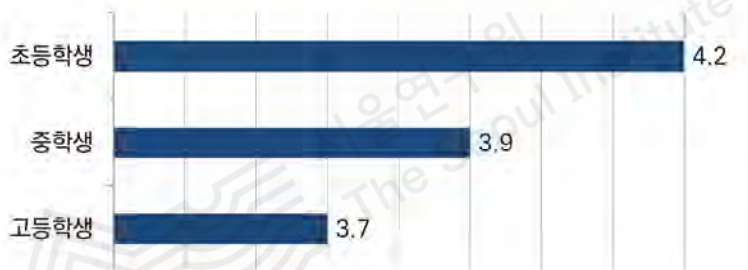


[그림 2-10] 보육 방법별 만족도

서울시민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었다($M = 4.1$, $SD = 1.3$). 만족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시민의 약 40.6%가 만족, 약 34.2%가 보통, 약 25.2%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1]). 자녀 학령별로는 초등학생($M = 4.2$, $SD = 1.4$), 중학생($M = 3.9$, $SD = 1.3$), 고등학생($M = 3.7$, $SD = 1.3$) 자녀 순으로 공교육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학령이 높아질수록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그림 2-12]).



[그림 2-11] 공교육 만족도



[그림 2-12] 자녀 학령별 공교육 만족도

(3) 사회 영역

서울시민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다소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M = 4.4$, $SD = 1.2$). 만족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시민의 약 51.1%가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만족, 약 29.4%가 보통, 약 19.4%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3]). 가족을 제외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평균적으로 약 2명 정도($M = 1.9$, $SD = 1.8$)로 나타났다([그림 2-14]).



[그림 2-13] 전반적 사회적 관계 만족도



[그림 2-14]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

서울시민은 직장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M = 4.4$, $SD = 1.3$). 서울시민의 약 50.9%가 직장생활에 만족, 약 29.0%가 보통, 약 20.2%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5]). 직장 생활 세부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직장 내 대인관계($M = 4.7$, $SD = 1.2$)와 담당 업무($M = 4.6$, $SD = 1.3$)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인 반면, 조직 문화($M = 4.2$, $SD = 1.4$)와 급여($M = 3.8$, $SD = 1.5$)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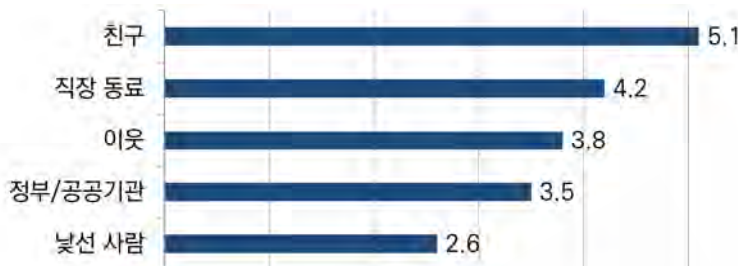


[그림 2-15] 직장 생활 전반 만족도



[그림 2-16] 직장 생활 세부 항목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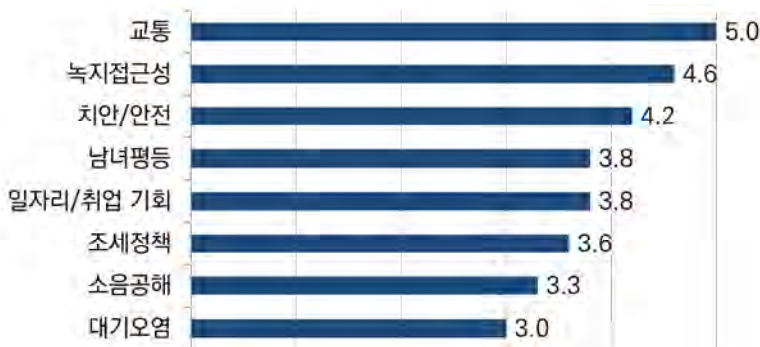
다음으로 서울시민의 대상별 신뢰 수준을 살펴보면, 친구에 대한 신뢰($M = 5.1$, $SD = 1.1$)는 비교적 높은 편인 데 비해 직장 동료에 대한 신뢰($M = 4.2$, $SD = 1.2$)는 평균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이웃($M = 3.8$, $SD = 1.3$)이나 정부/공공기관($M = 3.5$, $SD = 1.4$)에 대한 신뢰는 보통 수준에도 못 미쳤으며,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M = 2.6$, $SD = 1.5$)는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7]).



[그림 2-17] 대상별 신뢰 수준

(4) 환경 영역

서울시민의 생활환경 영역별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교통($M = 5.0$, $SD = 1.3$), 녹지접근성($M = 4.6$, $SD = 1.3$), 치안/안전($M = 4.2$, $SD = 1.4$)에 대한 만족은 보통 수준 이상이나, 남녀평등 정착($M = 3.8$, $SD = 1.3$), 일자리/취업 기회($M = 3.8$, $SD = 1.4$)에 대한 만족은 보통에 조금 못 미쳤으며, 조세정책($M = 3.6$, $SD = 3.4$)과 소음/공해($M = 3.3$, $SD = 1.4$), 대기오염($M = 3.0$, $SD = 1.5$)은 낮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그림 2-18]).



[그림 2-18] 생활 환경 만족도

3_서울시민의 행복 예측 요인

1) 서울시민의 행복 수준과 영역별 만족도의 관계

(1) 개인 요인과 행복 수준

본 연구에서 측정한 서울 시민의 개인 요인인 서울시민의 성격, 전반적 건강 평가와 행복 수준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행복은 인지적 행복(삶의 만족도)과 정서적 행복(긍정 정서-부정 정서)을 합한 값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민의 행복 수준은 성격의 모든 다섯 요인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표 2-1]). 먼저 신경증과 행복 수준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 = -.461$, $p < .05$. 반면 외향성($r = .309$, $p < .05$), 꼼꼼함($r = .308$, $p < .05$), 개방성($r = .216$, $p < .05$), 원만성($r = .142$, $p < .05$)과 행복 수준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신경증적 성향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낮지만 외향성, 꼼꼼함, 개방성, 원만성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서울 시민의 개인 요인인 전반적 건강 평가와 행복 수준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 = .390$, $p < .05$. 이는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가질수록 행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2-1] 서울시민의 개인 요인과 행복수준의 상관관계

구분	성별			연령별		
	전체	남자	여자	30대	40대	50대
신경증	-.461**	-.468**	-.455**	-.408**	-.517**	-.511**
외향성	.309**	.310**	.308**	.316**	.312**	.285**
꼼꼼함	.308**	.302**	.314**	.283**	.306**	.407**
개방성	.216**	.177**	.246**	.175**	.195**	.391**
원만성	.142**	.192**	.112**	.174**	.093*	.131*
전반적 건강 평가	.390**	.421**	.363**	.353**	.451**	.375**

* $p < .05$, ** $p < .01$

(2) 가정 요인과 행복 수준

본 연구에서 측정된 서울 시민의 가정 관련 요인인 경제 수준, 결혼, 자녀 보육 및 교육과 행복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2]). 먼저 경제수준과 행복 간의 상관 분석 결과, 경제적인 요인들은 모두 행복 수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재정 상태 만족과 행복 수준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r = .509$, $p < .05$, 사회경제적 지위 평가와 행복 수준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 = .493$, $p < .05$. 이는 서울시민은 재정 상태에 만족할수록, 그리고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행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월평균 가구 소득($r = .230$, $p < .05$)과 가구 총 자산($r = .167$, $p < .05$) 또한 행복 수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앞선 두 요인보다는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월평균 가구 소득과 가구 총 자산이 높을수록 행복한 경향이 있으나, 재정 상태 만족과 사회경제적 지위 평가가 행복과 더 밀접하게 관련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는 서울시민의 결혼 만족, 자녀의 보육 및 교육 만족과 행복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서울시민의 결혼 만족($r = .558$, $p < .05$), 미취학 자녀 보육 만족($r = .426$, $p < .05$), 자녀의 공교육 만족($r = .261$, $p < .05$)은 모두 행복수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시민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그리고 자녀의 보육과 공교육에 만족할수록 행복 수준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 2-2] 서울시민의 가정 요인과 행복수준의 상관관계

구분	성별			연령별		
	전체	남자	여자	30대	40대	50대
재정 상태 만족	.509**	.497**	.518**	.494**	.556**	.460**
사회 경제적 지위 평가	.493**	.485**	.500**	.474**	.522**	.506**
월평균 가구 소득	.230**	.226**	.234**	.209**	.274**	.199**
가구 총 자산	.167**	.151**	.182**	.148**	.177**	.203**
결혼 만족	.558**	.529**	.579**	.575**	.566**	.489**
미취학 자녀 보육 만족	.426**	.477**	.373**	.452**	.380**	.054
자녀 공교육 만족	.261**	.320**	.211**	.170*	.265**	.408**

* $p < .05$, ** $p < .01$

(3) 사회 요인과 행복 수준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민의 사회 요인으로서 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비롯하여 직장 동료, 이웃, 친구, 정부/공공기관,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수준 그리고 직장 생활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사회 요인과 행복 수준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사회 요인은 행복 수준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먼저 사회적 관계 만족은 행복 수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r = .589$, $p < .05$, 이는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에 만족할수록 행복한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대인 신뢰의 경우, 직장 동료 신뢰($r = .407$, $p < .05$), 이웃 신뢰($r = .395$, $p < .05$), 친구 신뢰($r = .355$, $p < .05$), 정부/공공기관 신뢰($r = .248$, $p < .05$),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r = .236$, $p < .05$) 모두 행복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직장 동료 신뢰와 이웃 신뢰, 그리고 친구 신뢰가 다른 신뢰 요인들보다 행복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표 2-3] 서울시민의 사회 요인과 행복 수준의 상관관계

구분	성별			연령별		
	전체	남자	여자	30대	40대	50대
전반적 사회적 관계 만족	.589**	.611**	.571**	.547**	.630**	.645**
직장동료 신뢰	.407**	.425**	.393**	.378**	.471**	.385**
이웃 신뢰	.395**	.389**	.400**	.392**	.430**	.355**
친구 신뢰	.355**	.334**	.371**	.334**	.379**	.369**
정부/공공기관 신뢰	.248**	.250**	.246**	.272**	.234**	.188**
낯선 사람 신뢰	.236**	.229**	.243**	.192**	.274**	.313**
전반적 직장 생활 만족	.561**	.564**	.560**	.540**	.613**	.508**
직장 내 대인관계 만족	.497**	.466**	.530**	.462**	.539**	.516**
조직문화 만족	.475**	.487**	.463**	.465**	.496**	.443**
급여 만족	.447**	.446**	.448**	.417**	.483**	.502**
업무 만족	.442**	.422**	.465**	.443**	.429**	.466**
휴가 사용 일수	.187**	.196**	.181**	.173**	.189**	.250**

* $p < .05$, ** $p < .01$

서울시민의 직장 생활 또한 행복 수준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직장 생활을 구성하는 요인인 전반적 직장 생활 만족($r = .561$, $p < .05$), 직장 내 대인관계 만족($r = .497$, $p < .05$), 조직문화 만족($r = .475$, $p < .05$), 급여 만족($r = .447$, $p < .05$), 업무 만족(r

= .442, $p < .05$), 그리고 휴가 사용 일수($r = .187$, $p < .05$)는 행복 수준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은 전반적인 직장 생활, 직장 내 대인관계, 조직문화, 급여, 업무에 만족할수록 행복 수준이 높으며, 휴가 사용 일수가 많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환경 요인과 행복 수준

본 연구에서 측정한 서울시민의 생활환경 요인인 일자리/취업기회 만족, 남녀평등 정착 만족, 조세정책 만족, 녹지접근성 만족, 소음공해 만족, 대기오염 만족, 치안안전 만족, 교통만족과 행복 수준의 관련성을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모든 생활환경 요인은 행복 수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일자리/취업기회 만족($r = .337$, $p < .05$), 남녀평등 정착 만족($r = .244$, $p < .05$), 조세정책 만족($r = .231$, $p < .05$), 녹지접근성 만족($r = .210$, $p < .05$), 소음공해 만족($r = .198$, $p < .05$), 대기오염 만족($r = .189$, $p < .05$), 치안안전 만족($r = .185$, $p < .05$), 교통만족($r = .168$, $p < .05$)은 행복 수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2-4]). 즉, 서울시민은 일자리/취업기회, 남녀평등 정착, 조세정책, 녹지접근성에 만족할수록 행복 수준이 높았고, 소음수준, 대기수준, 치안안전, 그리고 교통에 만족할수록 행복 수준이 높았다. 여러 환경 요인 중에서도 특히 일자리/취업기회 만족 여부가 서울시민의 행복과 관련이 높았다.

[표 2-4] 서울시민의 환경 요인과 행복 수준의 상관관계

구분	성별			연령별		
	전체	남자	여자	30대	40대	50대
일자리/취업기회 만족	.337**	.346**	.328**	.373**	.312**	.294**
남녀평등 정착 만족	.244**	.239**	.248**	.252**	.238**	.217**
조세정책 만족	.231**	.262**	.204**	.233**	.245**	.202**
녹지접근성 만족	.210**	.205**	.214**	.212**	.215**	.198**
소음공해 만족	.198**	.190**	.202**	.215**	.164**	.204**
대기오염 만족	.189**	.180**	.194**	.190**	.200**	.140*
치안안전 만족	.185**	.153**	.207**	.179**	.195**	.168**
교통 만족	.168**	.148**	.188**	.161**	.183**	.139*

* $p < .05$, ** $p < .01$

2) 서울시민의 행복 예측 핵심 요인

앞서 개인·가정·사회·생활 요인별 행복 수준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여러 변인들 중에서도 개인 요인에서는 전반적인 건강 평가($r = .390, p < .05$), 가정 요인에서는 재정 상태 만족($r = .509, p < .05$)과 결혼 만족($r = .558, p < .05$), 사회 요인에서는 전반적 사회적 관계 만족($r = .589, p < .05$)과 전반적 직장 생활 만족($r = .561, p < .05$)이 특히 행복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행복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들 중에서도 서울시민의 행복을 가장 강하게 예측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성격의 영향을 통제하였는데, 그 이유는 성격은 그 자체로도 행복과 관련이 높으며, 성격이 사회적 관계 만족이나 결혼 만족 등과 같은 행복 관련 변인들과도 상관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격의 영향력을 통제하고도 각 변인들이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표 2-5]).

먼저 1단계에서 성격이 행복을 예측하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 신경증($\beta = -.401, p < .05$), 외향성($\beta = .246, p < .05$), 개방성($\beta = .074, p < .05$), 원만성($\beta = .081, p < .05$)은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나, 꼼꼼함($\beta = .055, ns$)은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2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행복 예측 요인들을 투입했을 때 성격을 통제하여 성격의 영향력을 제외하였음에도, 앞서 행복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변인 모두가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전반적 건강 평가($\beta = .059, p < .05$), 재정 상태 만족($\beta = .177, p < .05$), 결혼 만족($\beta = .242, p < .05$), 사회적 관계 만족($\beta = .176, p < .05$)과 직장 생활 만족($\beta = .198, p < .05$)이 모두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서울시민의 행복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결혼 만족, 사회적 관계 만족, 직장 생활 만족이었다. 이를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이 서울시민의 행복을 가장 잘 예측하는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경제적 변인들 중 월평균 가구 소득은 행복을 더 이상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데 비해 재정 상태 만족이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 또한 주목할 부분인데, 이는 월평균 가구 소득과 같은 객관적인 소득 자체보다는 재정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이 행복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별에 따라 행복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남성의 행복은 전반적 직장 생활

만족($\beta = .228, p < .05$)이 가장 강하게 예측한 반면, 여성의 경우 결혼 만족($\beta = .275, p < .05$)이 행복에 가장 중요했다([표 2-6]).

[표 2-5] 행복에 대한 핵심 요인의 다중회귀분석

구분		전체		
		<i>B</i>	<i>SE</i>	β
1단계	외향성	.568	.067	.246***
	원만성	.227	.081	.081**
	꼼꼼함	.145	.083	.055
	신경증	-1.101	.086	-.401***
	개방성	.204	.083	.074*
2단계	외향성	.160	.055	.070**
	원만성	.135	.063	.048*
	꼼꼼함	.002	.064	.001
	신경증	-.562	.070	-.205***
	개방성	.198	.064	.071**
	전반적 건강 평가	.132	.053	.059*
	월평균 가구 소득	.009	.011	.018
	재정 상태 만족	.305	.044	.177***
	결혼 만족	.515	.052	.242***
	전반적 사회적 관계 만족	.398	.064	.176***
	전반적 직장 생활 만족	.416	.055	.198***

* $p < .05$, ** $p < .01$, *** $p < .001$

[표 2-6] 행복에 대한 핵심 요인의 다중회귀분석의 성차

구분		성별					
		남자			여자		
		<i>B</i>	<i>SE</i>	β	<i>B</i>	<i>SE</i>	β
1단계	외향성	.548	1.072	.238***	.590	.103	.257***
	원만성	.301	.090	.106**	.111	.128	.040
	꼼꼼함	.129	.110	.049	.190	.131	.073
	신경증	-1.106	.108	-.404***	-1.085	.134	-.392***
	개방성	.137	.115	.051	.306	.132	.106*
2단계	외향성	.167	.074	.072*	.153	.085	.067
	원만성	.185	.085	.065*	.090	.100	.032
	꼼꼼함	.035	.083	.013	-.039	.103	-.015
	신경증	-.523	.092	-.191***	-.620	.111	-.224***
	개방성	.102	.083	.038	.341	.103	.118**
	전반적 건강 평가	.157	.071	.071*	.099	.082	.044
	월평균 가구 소득	.016	.014	.033	-.008	.018	-.016
	재정 상태 만족	.228	.057	.135***	.417	.072	.236***
	결혼 만족	.451	.071	.206***	.563	.078	.275***
	사회적 관계 만족	.452	.086	.202***	.317	.100	.138**
	직장 생활 만족	.469	.075	.228***	.369	.083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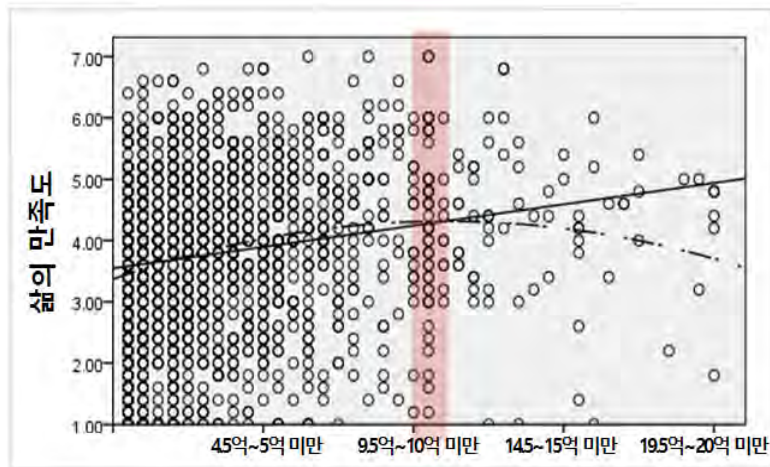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3) 경제적 번영보다 심리사회적 번영이 중요

(1) 서울시민의 행복에 있어 돈의 한계효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 자산 등의 객관적 경제 지표는 서울시민들의 행복과 관련된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돈이 더 이상 행복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에 비추어볼 때(Diener & Biswas-Diener, 2002; Easterlin, 1974; Howell & Howell, 2008), 이러한 관계는 선형적이지 않으며 어느 시점부터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날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 구간부터는 더 많은 돈이 더 높은 행복을 담보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는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의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따라서 개인 및 가구 소득과 자산 수준에 대해 2차 회귀분석(quadra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어느 소득 또는 자산 구간부터 경제적 번영과 삶의 만족도 간의



[그림 2-21] 가구 총 자산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종합하면, 월평균 650만 원 이상의 개인 소득과 900만 원 이상의 가구 소득, 10억 이상의 자산은 서울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과 더 이상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 또는 자산 수준에 다다른 개인에게는 더 많은 경제적 부를 추구하는 것이 그것을 성취하더라도 행복의 측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2)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요인의 중요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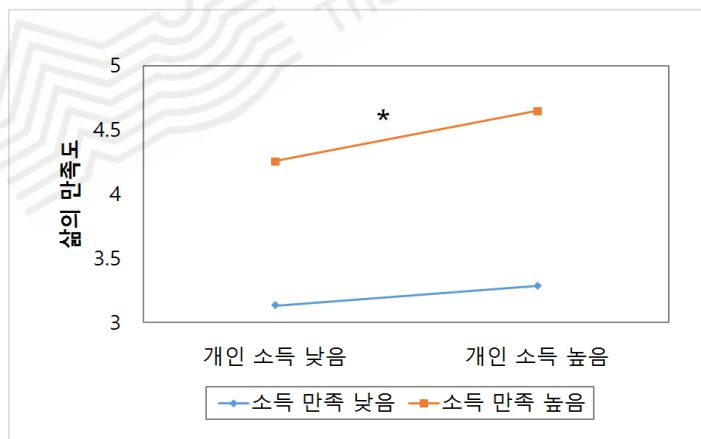
지금까지 소득이 행복을 예측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으며, 객관적인 소득 자체 보다는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더 높은 소득과 행복의 관계가 아예 유의미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특히 소득이 높을 때 행복 수준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는 변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① 개인 수준: 소득 만족의 중요성

앞서 소득 그 자체보다 만족도가 행복을 더 강하게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돈은 저소득과 고소득에서 의미하는 바가 다르며, 이에 따라 돈과 행복의 관계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소득 증가가 반드시 행복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득이 높아지면 비교 집단도 그에 맞춰 상향 변화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져도 행복 수준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적인 설명이다(Easterlin, 1974). 그러나 소득이 낮을 때 돈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욕구 충족

의 수단이기 때문에(Veenhoven, 1991) 소득에 대한 개인의 만족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 소득 그 자체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에 대한 만족은 소득 수준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행복을 예측하는 정도가 더 커질 것이다.

이처럼 소득 수준에 대한 만족이 소득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행복에 더 중요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삶의 만족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소득 수준과 소득 만족도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B = .009$, $t(1582) = 2.38$, $p < .05$, 이는 소득 만족에 따라서 소득이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2-22]). 상호작용의 정확한 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월평균 개인 소득이 높은 사람(평균에서 1 표준편차 위)과 낮은 사람(평균에서 1 표준편차 아래)에 대해 simple slope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소득에 대한 만족이 높을 때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으나, $B = .044$, $t(1582) = 5.48$, $p < .001$, 소득 만족이 낮을 때는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에 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B = .017$, $t(1582) = 1.89$, ns. 이는 객관적인 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의 소득에 대한 만족이 행복에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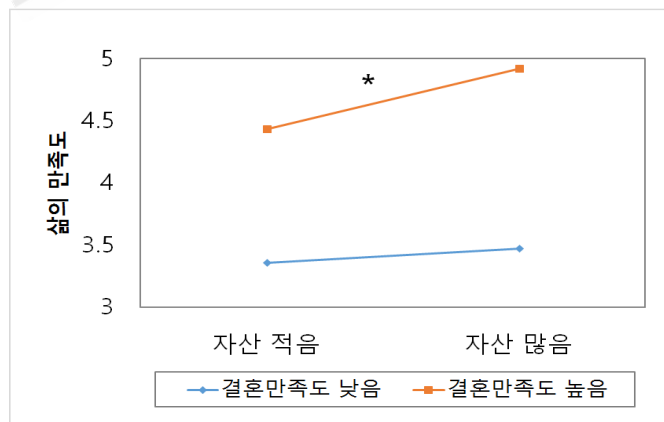
[그림 2-22] 소득이 높을 때 소득 만족 중요성 증가

② 가정 수준: 부부관계 만족과 자녀 보육 만족의 중요성

Inglehart(1997)는 인간 발달 모델(human development model)에서 경제가 발전하여 어느 정도 생존이 보장되면 물질적인 가치보다 자유로운 선택, 자기표현, 사회적 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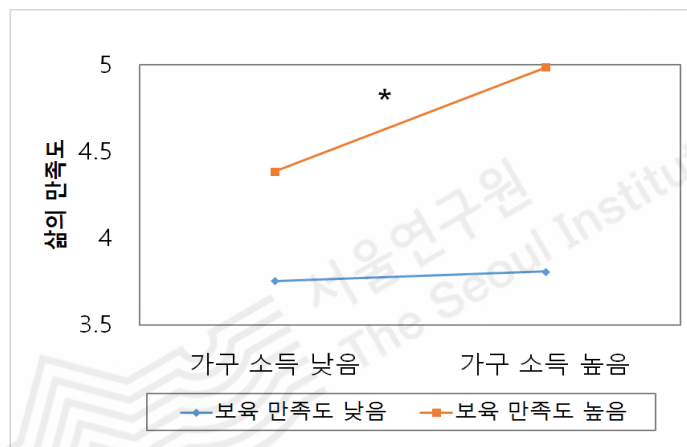
삶의 질과 같은 탈물질적(post-materialistic) 가치들이 행복에 더 중요해진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가난한 국가에서는 소득이나 기본적 욕구의 충족이 행복을 강하게 예측하는 반면, 부유한 국가에서는 자유, 신뢰, 존중과 같은 심리사회적 욕구(psychosocial needs)의 충족이 행복을 강하게 예측한다(Björnskov, 2003; Inglehart, Foa, Peterson, & Wetzel, 2008; Veenhoven, 2000; Ng & Diener, 2014). 이는 경제적으로 발전된 사회일수록 심리사회적 욕구가 물질적 욕구보다 행복에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 수준에서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욕구의 충족은 행복에 더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직접적으로 검증해보았다.

가정 변인 중 심리사회적 욕구와 관련된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에 따라서 자산 수준이 서울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다르게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삶의 만족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자산 수준과 부부관계 만족도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했다. $B = .008$, $t(1175) = 2.77$, $p < .01$ ([그림 2-23]).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에 따라서 가구 자산이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이 높을 때에는 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지만, $B = .025$, $t(1175) = 5.58$, $p < .001$,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이 낮으면 자산 수준이 높아도 삶의 만족도가 더 높지 않았다, $B = .006$, $t(1175) = 1.20$, ns. 이는 경제적으로 부유할수록 배우자와의 만족스러운 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2-23] 자산이 많을 때 결혼 만족 중요성 증가

가정 변인 중 또 다른 중요한 심리사회적 변인은 자녀의 보육에 대한 만족이다. 자녀 보육 만족에 따라서 가구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월평균 가구 소득과 자녀 보육 만족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했다, $B = .022$, $t(435) = 2.69$, $p < .01$ ([그림 2-24]). 구체적으로, 자녀 보육 만족이 높을 때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패턴을 보였으나, $B = .055$, $t(435) = 4.42$, $p < .001$. 자녀 보육 만족이 낮을 때는 높은 소득이 삶의 만족도와 상관이 없었다, $B = .005$, $t(435) = .34$, ns.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보육에 대한 만족이 행복에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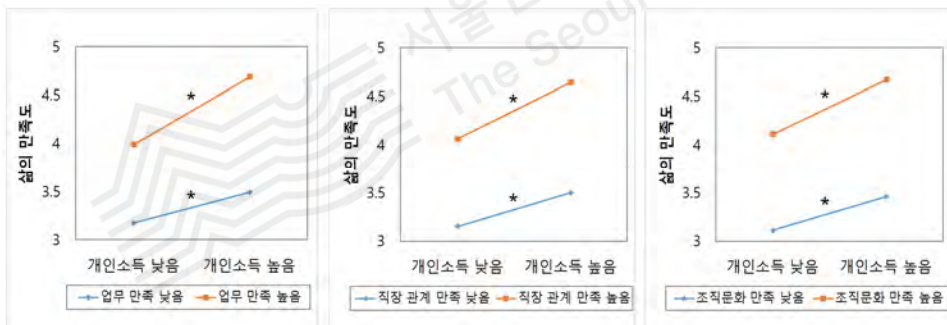


[그림 2-24] 소득이 높을 때 보육 만족 중요성 증가

③ 사회 수준: 직장 근무 환경의 중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로운 선택, 자기표현, 사회적 자본과 같은 탈물질적 (post-materialistic) 가치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할수록 행복에 더 중요하다. 이는 사회적 수준에서 직장 근무 환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즉,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만족이나 직장 내 대인 관계에 대한 만족, 조직 문화에 대한 만족 등의 질적 측면들이 개인의 행복에 더 중요할 것이다.

직장 내 업무 만족, 관계 만족, 조직문화 만족에 따라서 개인 소득이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장 근무 환경의 질적 측면을 반영하는 세 변인 모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업무 만족: $B = .017$, $t(1582) = 3.64$, $p < .001$, 관계 만족: $B = .011$, $t(1582) = 2.32$, $p < .05$, 조직문화 만족: $B = .008$, $t(1582) = 1.95$, $p = .05$ [그림 2-25]). 구체적인 패턴을 분석한 결과, 업무, 관계, 그리고 조직문화에 대한 만족이 낮을 때에도 소득이 삶의 만족도와 관련되기는 하지만(업무 만족: $B = .308$, $t(1582) = 10.60$, $p < .001$, 관계 만족: $B = .367$, $t(1582) = 11.79$, $p < .001$, 조직문화 만족: $B = .350$, $t(1582) = 12.83$, $p < .001$), 업무, 관계 그리고 조직문화에 대한 만족이 높을 때 소득이 삶의 만족도와 더 강하게 관련되었다(업무 만족: $B = .453$, $t(1582) = 15.00$, $p < .001$, 관계 만족: $B = .460$, $t(1582) = 15.11$, $p < .001$, 조직문화 만족: $B = .424$, $t(1582) = 15.35$, $p < .001$). 이는 담당 업무, 직장 내 대인관계, 그리고 조직문화에 만족할 때 높은 소득이 높은 삶의 만족도로 연결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25] 소득이 높을 때 직장 근무 환경 질적 측면의 중요성 증가

종합하면,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소득에 대한 주관적 만족이나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 보육 여건, 직장 근무 환경과 같은 삶의 질적 측면들이 서울 시민의 행복에 더 중요해진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논의 시 경제 수준과 삶의 질적 측면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Bjørnskov, C., 2003, "The happy few: Cross-country evidence o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Kyklos*, 56, pp.3~16.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pp.71~75.
- Diener, E., & Diener, C., 1996, "Most people are happy", *Psychological science*, 7(3), pp.181~185.
- Diener, E., & Biswas-Diener, R., 2002, "Will money increase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57(2), pp.119~169.
- Diener, E., Helliwell, J., Lucas, R., & Schimmack, U., 2009, *Well-being for Public Poli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iener, E., Scollon, C. N., & Lucas, R. E., 2009, "The evolving concept of subjective well-being: The multifaceted nature of happiness", *Assessing well-being*, pp.67~100.
- Diener, E., Wirtz, D., Tov, W., Kim-Prieto, C., Choi, D., Oishi, S., & Biswas-Diener, R., 2009, "New measures of well-being: Flourishing and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9, pp.247~266.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Nations, households and economic growth*, 89, pp.98~125.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pp.348~362.
- Gosling, S. D., Rentfrow, P. J., & Swann, W. B., 2003, "A very brief measure of the Big-Five personality domai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 pp.504~528.
-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59(1449), pp.1435.
- Howell, H., & Howell, C., 2008, "The relation of economic status to subjective well-being in developing countrie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4, pp.536~560.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 Foa, R., Peterson, C., & Welzel, C., 2008, "Development, freedom, and rising happiness: A global perspective (1981-2007)",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4), pp.264~285.

Kroenke K., Spitzer, R. L., Williams, J. B. W., Lowe, B., 2009, An Ultra-Brief Screening Scale for Anxiety and Depression: The PHQ-4. *Psychosomatics*, 50, pp.613~621.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 pp.803~855.

Norton, R., 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pp.141~151.

Ng, W., & Diener, E., 2014, "What matters to the rich and the poor? Subjective well-being, financial satisfaction, and postmaterialist needs across the worl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2), pp.326.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pp.1~34.

Veenhoven, R., 2000, Freedom and Happiness: A comparative study in forty-four nations in the early 1990s.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257-288), Cambridge, MA: MIT Press.

Ware Jr, J. E., & Sherbourne, C. D., 1992, "The MOS 36-Item Short-Form Health Survey (SF-36): I. Conceptual Framework and Item Selection", *Medical Care*, 30, pp.473~483.

03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한 서울시민 행복

- 1_연구개요
- 2_데이터 분석
- 3_결론 및 시사점

연구책임	송 민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연구진	이보람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연구원
	한유경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연구원

03 |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한 서울시민 행복

1_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 정신적 측면에서도 사회의 발전을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 대두
 - 국가 혹은 도시의 발전이 더 이상 ‘국민 총생산 지표(GDP)’로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
 - 경제적 번영과 같은 물질적 측면 외에도 삶의 질이나 행복 등 정신적인 측면으로도 사회의 발전을 이해하고 측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
- 전 세계적으로 삶의 질 지표를 구축하여 국민의 행복과 더불어 국가적 성장을 측정하는 잣대로 활용
 - 커뮤니티, 시민참여, 건강, 안전, 문화여가, 생활만족으로 제시한 OECD의 ‘삶의 질 지표’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요인(소득, 나이, 교육과 건강, 여가활동, 신뢰와 네트워크, 실업과 인플레이션, 개인적 특성인 성격)을 논의
 - 대한민국(국가 삶의 질 지표), 영국(National Wellbeing), 캐나다(Canadian Index of Wellbeing), 뉴질랜드(Quality of life Survey) 등 전 세계적으로 삶의 질 지표를 구축
 - 삶의 질 지표를 통한 지수를 국가들 간에 서로 비교함으로써, 국민의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적 성장을 측정하는 잣대로 이용됨

(2) 연구 필요성

-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행복지표’ 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
 -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행복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년 서울 서베이는 4만 5,000여 명의 서울시민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텍스트 마이닝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
 - 설문조사는 개개인이 생각하는 삶의 질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들을 수용하지 못할 확률이 있음
 - 이는 ‘서울시 행복지표’ 체계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행복과 불행을 느낄 수 있음을 의미
 - 텍스트 마이닝은 인터넷에 등장하는 수많은 텍스트를 이용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음
 - 특히 개인 SNS를 분석한다면 개인이 어느 영역과 관련하여 행복을 느끼는지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에서 행복한 감정을 보이는 영역은 무엇인지까지 탐색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설적 담론과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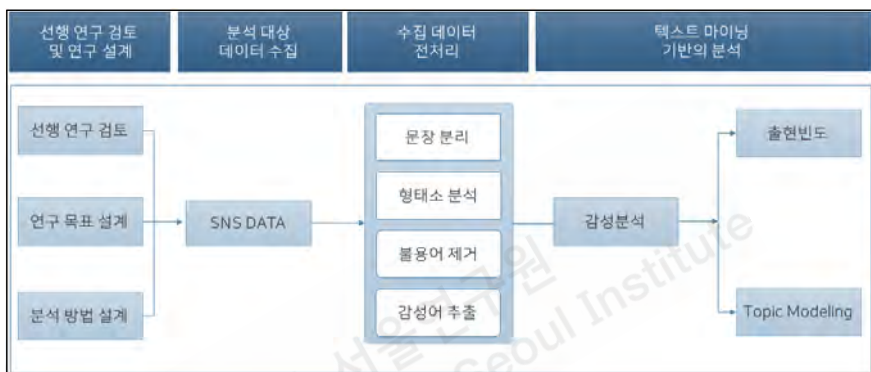
2)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 서울 시민의 행복·불행 요인을 분석
 -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서울 시민의 행복·불행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지 파악
 - 행복·불행 요인과 관련된 키워드 추출
 - 행복·불행 요인은 어떤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

(2) 연구방법

- ‘서울’과 관련 있는 SNS 데이터를 수집
 - 서울시 자치구 25개의 지역명으로 SNS 데이터를 수집
 - 수집 기간은 2007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임
 - 수집 데이터에서 스팸과 중복 게시글을 제거하여 총 3,830,419건의 데이터를 모음



[그림 3-1] 연구 진행 과정

- 수집 데이터를 전처리
 - 수집된 데이터는 문장 분리, 형태소 분석, 불용어 제거와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침
- 감성어를 추출하여 감성 분석 진행
 - 기존의 긍·부정 단어 사전을 응용
 - 행복 단어에는 행복, 감사, 환희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207개 단어로 구성됨
 - 불행 단어는 불행, 앓음, 우울 등의 단어를 포함하며 589개의 단어로 구성됨
- 감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행복·불행 연관어 추출
 - 행복과 불행을 나타내는 데이터 셋을 각각 구축

- 각 데이터들의 가중치(TF-IDF)를 계산하여 고순위에 해당하는 연관어들을 추출
- 감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토픽 모델링 분석
 - 행복과 불행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셋에 각각 토픽 모델링을 수행
 - 50개의 토픽을 수집한 후 이 중 의미 있는 토픽 15개를 선정하여 주제명을 부여
 - 유사한 주제를 나타내는 토픽들을 분류하여 영역을 지정
 - 각 토픽은 2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주제와 관련된 상위 5개의 단어를 표시



2_데이터 분석

1) 행복/불행 연관 키워드 분석

(1) 일자리, 의료, 교통 영역 등의 순위로 행복 연관어가 빈출됨

- 키워드 추출을 통하여 추출된 서울 시민의 행복 연관어 중 가중치(TF-IDF)를 연산하여 순위를 분석함
 - 빈출된 키워드는 상위 30개를 기준으로 일자리, 의료, 교통, 생활, 경제, 교육, 여행, 주거, 복지 영역 순으로 구성됨
 - 일자리 영역의 경우 일자리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 분야의 경우 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원, 건강보험 키워드로 구성됨
 - 교통 영역의 경우 정류장, 자동차, 터미널, 고속버스, 승용차, 지하철 키워드로 구성됨

[표 3-1] 행복 관련 키워드 상위 30개

순위	연 관 어	순위	연 관 어	순위	연 관 어
1	일자리	11	부동산	21	사립대
2	종합병원	12	전기요금	22	보증금
3	정류장	13	자동차	23	쇼핑몰
4	파이낸셜	14	응급실	24	양육비
5	재래시장	15	의료원	25	서울지하철
6	초중고	16	등록금	26	유치원
7	자산운용	17	원룸주택	27	건강보험
8	어린이	18	남부터미널	28	도시가스
9	아파트	19	고속버스	29	홀리데이
10	공항리무진	20	승용차	30	사회복지

(2) 근무환경, 공공기관, 주거 영역 등의 순위로 불행 연관어가 빈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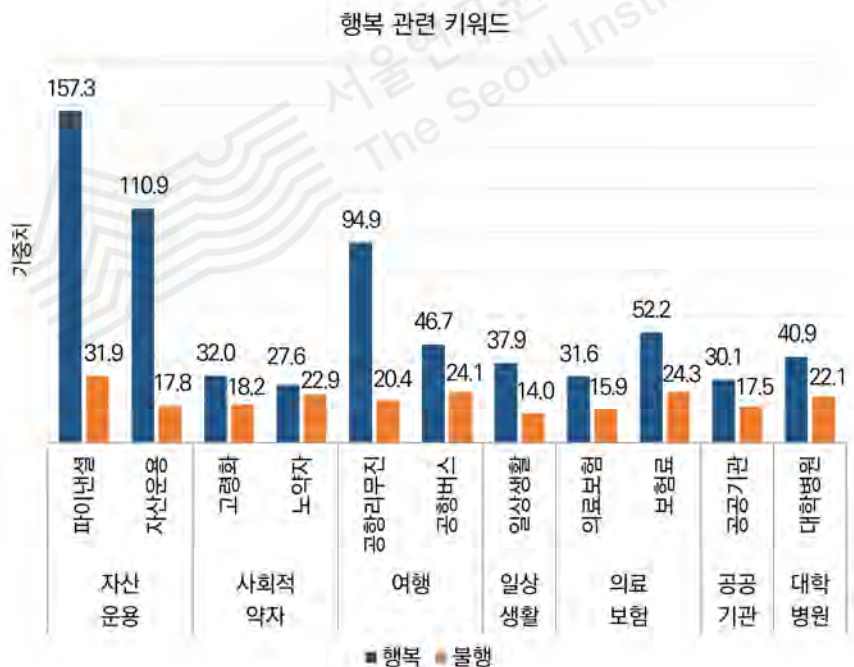
- 키워드 추출을 통하여 추출된 서울 시민의 불행 연관어 중 가중치(TF-IDF)를 연산하여 순위를 분석함
 - 빈출된 키워드는 상위 30개를 기준으로 근무환경, 공공기관, 주거, 장례, 교육, 정치, 의료, 반려동물, 사회적 네트워크, 장애인 영역 순으로 구성됨
 - 근무환경 영역의 경우 초과근무, 과로사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기관 분야의 경우 국세청, 서울중앙지방법원, 교육청, 동주민센터, 국립극장 키워드로 구성됨
 - 주거 영역의 경우 아파트, 배수량, 역세권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례 영역의 경우 장례식 키워드로 구성됨

[표 3-2] 불행 관련 키워드 상위 30개

순위	연 관 어	순위	연 관 어	순위	연 관 어
1	초과근무	11	교육청	21	과로사
2	국세청	12	동물병원	22	배수량
3	아파트	13	동주민센터	23	공부방
4	장례식	14	중학교	24	실업계
5	초등학교	15	어린이	25	다문화가족
6	국회의원	16	강아지	26	대인관계
7	서울중앙지방법원	17	도서관	27	역세권
8	유치원	18	시의원	28	고등학교
9	교육감	19	학생부	29	장애인
10	종합병원	20	국립극장	30	평생교육

(3) 자산 운용, 사회적 약자, 여행 영역이 행복 연관어로 차별적으로 빈출됨

- 불행 연관어와 차별적으로 자산운용, 사회적 약자, 여행 영역이 나타남
 - 행복 연관어는 불행 연관어와는 다르게 자산운용, 사회적 약자, 여행, 일상 생활, 의료보험, 공공기관, 대학병원 영역 등이 차별적으로 구성됨
 - 자산 운용 영역의 경우 자산운용 키워드는 행복 연관어 가중치가 110.9포인트로 나타났으나, 불행 연관어 가중치의 경우 17.8포인트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여행 영역의 경우 공항 리무진, 공항 버스와 같은 행복 연관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94.9포인트, 46.7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 약자 영역의 경우 고령화, 노약자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고 일상 생활 영역의 경우 일상생활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2] 행복 연관어

(4) 도시 재개발, 개발제한 구역, 고독사, 대인관계, 쓰레기, 초과근무, 페스티벌, 정치가 불행 연관어로 차별적으로 빈출됨

- 행복 연관어와 차별적으로 초과근무, 정치, 대인관계, 도시재개발 영역이 나타남
 - 불행 연관어는 행복 연관 키워드와는 다르게 초과근무, 정치, 대인관계, 도시재개발, 개발제한구역, 고독사, 쓰레기, 페스티벌 영역 등이 차별적으로 구성됨



[그림 3-3] 불행 연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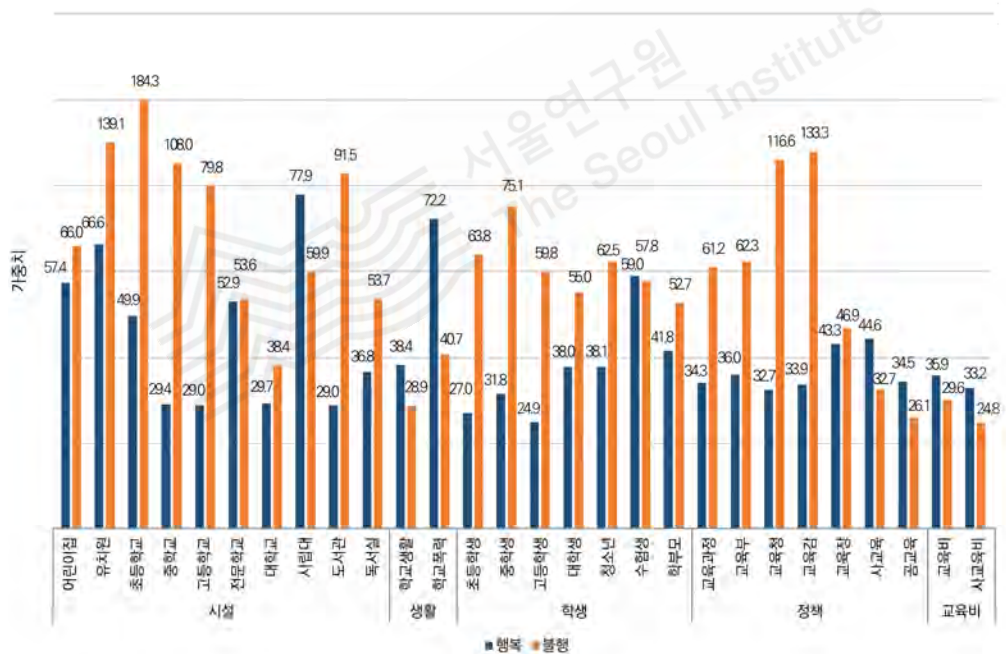
- 초과근무 영역의 경우 초과근무 키워드는 불행 연관 키워드 가중치가 260.2 포인트로 나타났으나 행복 연관어 가중치의 경우 18.7포인트로 나타나고 과로사 키워드의 경우도 불행 연관어 가중치가 84.2포인트, 행복 키워드 가중치가 30.2포인트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정치 영역의 경우 기초단체장, 서울시의회와 같은 불행 연관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159.5포인트, 53.7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음
- 도시 재개발 영역의 경우 뉴타운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영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음
- 고독사,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 영역이 등장하였으며, 쓰레기 키워드로 보아 도시 환경 영역, 페스티벌 영역도 나타나고 있음

(5) 교육, 경제적 활동, 의식주 관련, 교통, 여가 영역 등이 행복, 불행 공통 연관어로 빈출됨

- 교육 영역의 경우 교육 시설, 학교 생활, 학생, 교육비 관련 키워드 등장

교육 관련 키워드



[그림 3-4] 행복, 불행 관련 공통 연관어 - 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같은 학교뿐만 아니라 도서관, 독서실과 같은 키워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학교 생활, 학교 폭력 키워드가 나타났고 학생, 학부모, 수험생 키워드들도 나타나고 있음
- 교육정책 영역의 경우 교육과정, 교육 관리 기관, 기관장 및 사교육, 공교육 키워드가 빈출되었고, 교육비 영역은 교육비와 사교육비 키워드가 빈출됨
- 교육 관련 키워드의 경우 28개 키워드 중 20개 키워드가 행복 연관어 가중치보다 불행 키워드 가중치가 더 높은 가중치를 나타내고 있음
- 경제활동 영역의 경우 투자/수익, 근로, 보험 관련 키워드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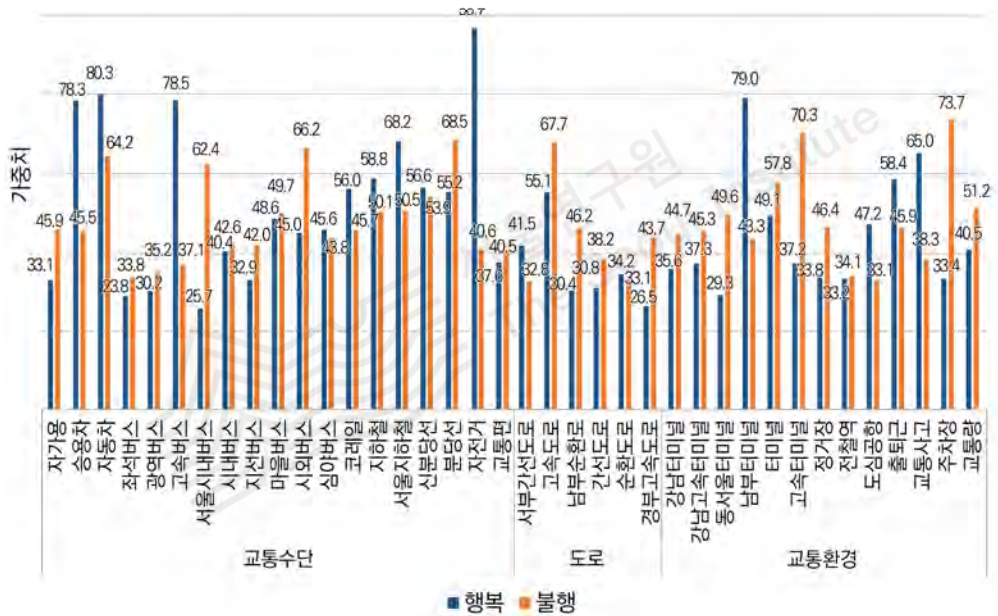
경제적 활동 관련 키워드



[그림 3-5] 행복, 불행 관련 공통 연관어 - 경제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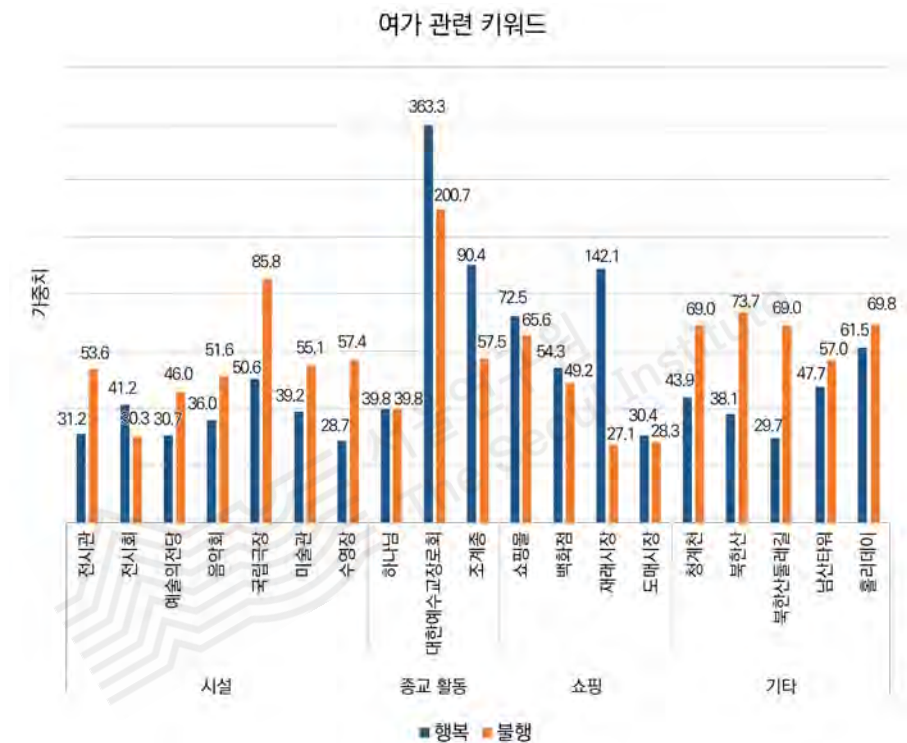
- 교통 관련 영역의 경우 교통수단, 도로, 교통 환경 관련 키워드 등장
 - 승용차, 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 교통수단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나타남
 - 도로의 경우 고속도로, 간선도로, 순환도로 관련 고속화 도로 키워드들이 빈출됨
 - 교통 환경의 경우 터미널, 정거장, 공항 키워드가 나타났으며 출퇴근, 교통 사고, 교통량과 같은 교통이용에 대한 키워드도 등장함

교통 관련 키워드



[그림 3-기] 행복, 불행 관련 공통 연관어 - 교통

- 여가 관련 영역의 경우 여가 시설, 종교 활동, 쇼핑 관련 키워드 등장
 - 전시 및 관람 시설, 운동 시설 등의 키워드가 나타나고 있으며 쇼핑몰과 시장 키워드 등도 빈출됨
 - 종교 활동과 관련된 교회, 절 키워드들이 등장하였으며 청계천, 북한산, 남산타워 등의 랜드마크 키워드가 빈출됨



[그림 3-8] 행복, 불행 관련 공통 키워드 - 여가

[표 3-3] 행복, 불행 관련 공통/차이 연관어

	영역	빈출 키워드
행복 관련 차이 연관어	자산 운용	파이낸셜, 자산운용 ...
	사회적 약자	고령화, 노약자 ...
	여행	공항리무진, 공항버스 ...
	일상생활	일상생활 ...
	의료보험	의료보험, 보험료 ...
	공공기관	공공기관 ...
	대학병원	대학병원
불행 관련 차이 연관어	도시 재개발	뉴타운 ...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
	고독사	고독사 ...
	대인관계	대인관계 ...
	쓰레기	쓰레기 ...
	초과근무	초과근무, 과로사 ...
	페스티벌	하이서울페스티벌 ...
	정치	기초단체장, 서울시의회 ...
행복, 불행 관련 공통 연관어	교육	시설, 생활, 학생, 정책, 교육비 관련 ...
	경제적 활동	투자/수익, 근로, 보험 관련 ...
	의식주 관련	주거, 식사, 지출 관련 ...
	교통	교통수단, 도로, 교통환경 관련 ...
	여가	시설, 종교활동, 쇼핑 관련 ...

2) 가정생활, 식생활 영역은 행복, 주거 영역은 불행

(1) 행복 토픽은 가정생활, 식생활, 여행 영역에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가정생활, 식생활, 여행 영역의 행복 토픽 개수는 각 3개씩 등장하며, 이는 다른 토픽들에 비해 많이 등장함
 - 가정생활 영역은 결혼, 한복, 신부, 남편, 어머니, 아내, 엄마, 아이와 같이 결혼이나 가족과 관련된 단어들로 구성됨

- 식생활 영역은 마늘, 양념, 국물, 파스타, 갈비, 양념 등 요리나 식재료로 구성되어 있음
- 여행 영역은 오사카, 도쿄와 같이 일본과 관련되어 있거나 공항, 버스, 지하철 등 교통과 관련된 단어들로 구성됨
- 문화여가 영역과 관련된 행복 토픽은 공연과 전시장
 - 문화여가 영역은 공연, 노래, 목소리 등의 공연이나 전시, 역사, 작품, 박물관 등과 같이 전시장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타남
- 건강, 교육, 정치, 주거 영역에 대한 행복 토픽은 각 1개씩 등장
 - 건강 영역은 치료, 자세, 통증, 수술과 같이 의료 단어들로 구성됨
 - 교육 영역은 입시, 학생, 수업, 내신, 대학과 같이 입시와 관련된 단어들로 이루어짐
 - 정치 영역은 대통령, 국민, 정치, 정부, 민주당과 같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와 관련된 단어들이 있음
 - 주거 영역은 입주, 분양, 아파트, 신도시, 부동산과 같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음

가정 생활			문화 여가	
결혼	가족(1)	가족(2)	공연	전시장
• 결혼, 한복, 신부, 신랑, 예물	• 남편, 마음, 어머니, 아내, 생일	• 엄마, 아이, 아빠, 아들, 아기	• 공연, 노래, 목소리, 영화, 출연	• 전시, 역사, 작품, 박물관, 나비
식 생활			주 거	교 육
요리	양식	고기	아파트	입시
• 마늘, 양념, 국물, 버섯, 요리	• 파스타, 샐러드, 피자, 크림, 치킨	• 갈비, 양념, 소고기, 냉면, 돼지	• 입주, 분양, 아파트, 신도시, 부동산	• 입시, 학생, 수업, 내신, 대학
여 행			정 치	진 강
일본	여행	교통	정치	의료
• 일본, 오사카, 도쿄, 한국, 일본인	• 여행, 공항, 버스, 출발, 기차	• 지하철, 호선, 노선, 버스, 여행	• 대통령, 국민, 정치, 정부, 민주당	• 치료, 자세, 통증, 수술, 근육

[그림 3-9] 행복 토픽 및 단어

(2) 불행 토픽은 주거, 여행 영역에 가장 많이 등장함

- 주거, 여행 영역의 불행 토픽의 개수는 3개로, 다른 영역들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남

- 주거 영역에는 개발, 도시, 구역과 같은 도시개발 토픽, 전세, 아파트, 상승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 토픽, 위치, 토지, 아파트 경매와 같은 아파트 토픽이 들어감
- 여행 영역은 호텔, 게스트 하우스, 위치와 같은 숙소 토픽, 한강, 공원, 자연 등의 휴양지 토픽, 한국, 일본, 외국인과 같은 외국 토픽이 포함됨
- 식생활, 교육, 정치 영역의 불행 토픽은 각 2개씩 나타남
 - 식생활 영역은 주문, 가격, 새우와 같은 음식 토픽과 위치, 골목, 가격 등의 맛집 토픽이 들어감
 - 교육 영역에는 대학, 수능, 수학, 교육, 초등학교, 학생 등 입시와 학교 관련 단어들이 있음
 - 정치 영역에는 후보, 의원, 새누리당 등의 국회의원 토픽과 국민, 대한민국, 대통령 등의 정치 토픽이 들어감
- 가정환경, 문화생활, 건강 영역의 불행 토픽은 각 1개씩 있음
 - 가정환경의 불행 토픽은 아이, 도시락, 체험, 유치원과 관련된 어린이임
 - 문화생활 영역에는 문화, 문화센터, 행사, 공연 등이 들어가 있음
 - 건강 영역의 불행 단어들은 치료, 피부, 증상, 여성, 한의원이 포함됨

주 거			식 생 활	
도시개발	부동산	아파트	음식	맛집
• 개발, 서울 지역, 도시, 구역	• 서울, 부동산, 전세, 아파트, 상승	• 아파트, 서울, 위치, 토지, 아파트 경매	• 주문, 가격, 음식, 새우, 참치	• 맛집, 위치, 골목, 가격, 점심
교 육		정 치		가정환경
입시	학교	국회의원	정치	어린이
• 학생, 입시, 대학, 수능, 수학	• 학교, 교육 초등학교, 초등학교, 서울, 학생	• 후보, 의원, 새누리당, 서울, 국회의원	• 국민, 대한민국, 대통령, 경찰, 서울	• 아이, 도시락, 어린이, 체험, 유치원
여 행		정 치	진 강	
숙소	휴양지	외국	문화생활	의료
• 호텔, 게스트 하우스, 위치, 숙소, 게스트	• 서울, 한강, 공원, 자연, 벚꽃	• 한국, 일본, 외국인, 중국, 유학	• 서울, 문화, 문화센터, 행사, 공연	• 치료, 피부, 증상, 여성, 한의원

[그림 3-10] 불행 토픽 및 단어

(3) 가정환경, 식생활, 문화여가 영역은 불행 토픽보다 행복 토픽에서 주로 다룸

- 가정환경 영역의 경우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룰수록 행복해지나, 어린이를 보육할 때 불행을 느낌
 - 행복 토픽의 단어에서는 결혼, 남편, 엄마, 아빠 등이 등장하나 불행 토픽의 단어에서는 아이, 도시락, 어린이가 주를 이룸
- 식생활 영역에서는 요리함으로써 행복함을 느끼나 맛집의 가격, 장소 등을 고려할 때 불행을 느낌
 - 행복 토픽의 단어에서는 요리의 재료나 양식, 고기 등이 나오지만 불행 토픽에서는 주문, 가격, 위치 등이 등장함
- 문화여가 영역의 경우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장소에 직접 참여할 때 행복하나 전반적인 문화생활에서는 불행해 함
 - 행복 토픽의 단어에서는 노래, 영화, 전시, 역사, 박물관 등이 나오지만 불행 토픽에서는 문화, 문화센터, 행사와 관련된 단어가 나타남

[표 3-4] 가정환경, 식생활, 문화여가 영역의 토픽 간 비교

구분	행복 토픽 및 단어		불행 토픽 및 단어	
	토픽	단어	토픽	단어
가정환경	결혼	결혼, 한복, 신부, 신랑, 예물	어린이	아이, 도시락, 체험, 어린이, 유치원
	가정(1)	남편, 마음, 어머니, 아내, 생일		
	가정(2)	엄마, 아이, 아빠, 아들, 아기		
식생활	요리	마늘, 양념, 국물, 버섯, 요리	음식	주문, 가격, 음식, 새우, 참치
	양식	파스타, 샐러드, 피자, 크림, 치킨		
	고기	갈비, 양념, 소고기, 냉면, 돼지	맛집	맛집, 위치, 골목, 가격, 점심
문화여가	공연	공연, 노래, 목소리, 영화, 출연	문화생활	서울, 문화, 문화센터, 행사, 공연
	전시장	전시, 역사, 작품, 박물관, 나비		

(4) 불행 토픽은 주거, 교육, 정치 면에서 행복 토픽보다 많이 등장함

- 주거 영역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행복과 불행 모두 느낄 수 있지만 도시개발, 부동산에서는 불행을 더 느끼고 있음
 - 행복 토픽의 단어에서는 입주, 분양, 신도시와 같이 새로운 주거 생활과 관련한 단어가 주를 이루나 불행 토픽의 단어에서는 개발, 전세, 아파트, 상승, 위치와 같은 단어들이 나타남
- 교육 영역의 경우 입시에서 행복과 불행을 모두 느끼고 있지만 학교에 대해서는 불행해하고 있음
 - 행복 토픽과 불행 토픽에서 모두 입시, 학생, 대학과 같은 입시 관련 단어들이 나타나며 불행 토픽은 교육, 초등학교와 같은 단어들도 포함함
- 정치 영역에서는 대통령, 국민 등에 대해 모두 행복과 불행을 느끼고 있으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행복보다 불행을 더 느끼고 있음
 - 정치 영역의 행복 단어로는 정부, 민주당이 등장하였으며 불행 단어로는 새누리당, 대한민국, 경찰 등이 나타남

[표 3-5] 주거, 교육, 정치 영역의 토픽 간 비교

구분	행복 토픽 및 단어		불행 토픽 및 단어	
	토픽	단어	토픽	단어
주거	아파트	입주, 분양, 아파트, 신도시, 부동산	도시개발	개발, 서울, 지역, 도시, 구역
			부동산	서울, 부동산, 전세, 아파트, 상승
			아파트	아파트, 서울, 위치, 토지, 아파트_경매
교육	입시	입시, 학생, 수업, 내신, 대학	입시	학생, 입시, 대학, 수능, 수학
			학교	학교, 교육, 초등학교, 초등학교_서울, 학생
정치	정치	대통령, 국민, 정치, 정부,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의원, 새누리당, 서울, 국회의원
			정치	국민, 대한민국, 대통령, 경찰, 서울

(5) 여행과 건강 영역에서는 행복과 불행이 동등하게 나타남

- 여행 영역에서는 외국에 대해 행복과 불행을 모두 느끼고 있으며 교통 면에서는 행복을, 숙소나 휴양지 면에서는 불행을 느끼고 있음
 - 오사카, 도쿄 등을 포괄하는 일본은 행복과 불행 단어에서 모두 나타남
 - 행복 단어는 공항, 버스, 지하철 등 교통 관련 단어에 중점인 반면 불행 단어에서는 한강, 호텔, 유학 등이 나타남
- 건강 영역의 경우 의료 분야에서 행복과 불행을 모두 느끼고 있음
 - 행복 토픽의 단어에서는 자세, 통증, 수술과 같은 단어가 나오며 불행 단어로는 피부, 여성, 한의원 등이 나옴

[표 3-6] 여행과 건강 영역의 토픽 간 비교

구분	행복 토픽 및 단어		불행 토픽 및 단어	
	토픽	단어	토픽	단어
여행	일본	일본, 오사카, 도쿄, 한국, 일본인	숙소	호텔, 게스트 하우스, 위치, 숙소, 게스트
	여행	여행, 공항, 버스, 출발, 기차	휴양지	서울, 한강, 공원, 자연, 벚꽃
	교통	지하철, 호선, 노선, 버스, 여행	외국	한국, 일본, 외국인, 중국, 유학
건강	의료	치료, 자세, 통증, 수술, 근육	의료	치료, 피부, 증상, 여성, 한의원

3_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1) 행복 연관어와 주제 분석

- 행복 연관어의 경우 일자리, 의료, 교통, 경제, 생활, 교육, 주거, 복지 항목이 등장하였으며 불행 연관어와 달리 개인의 경제적 자산 운용, 사회적 약자, 여행과 관련된 연관어가 등장함
- 15개의 행복 토픽 중 가정환경, 식생활, 여행 관련 토픽은 각각 3개씩 등장하였으며, 문화여가 토픽은 2개, 교육, 건강, 주거, 정치 관련 토픽은 각각 1개씩 등장함

(2) 불행 연관어와 주제 분석

- 불행 연관어의 경우 근무환경, 공공기관, 주거, 장례, 교육, 정치, 의료, 반려동물, 사회적 네트워크, 장애인 등이 나타났으며, 행복 연관어와 달리 도시 재개발, 개발 제한구역, 초과근무, 정치 연관어가 등장함
- 15개의 불행 토픽에서는 주거, 여행 토픽이 3개씩 등장하였으며 교육, 정치, 식생활에 해당하는 토픽은 2개, 문화여가, 건강, 가정환경 토픽은 1개씩 등장함

2) 시사점

(1) 키워드 분석

- 기본적인 의식주와 교통, 교육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부유함 및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원 그리고 건강을 위한 보험 및 복지가 서울 시민의 행복 연관어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문화생활, 여행, 근로 환경 키워드를 통하여 일과 삶의 균형이 행복 연관어로 나타남
- 도시 재개발, 개발 제한 구역을 통해 도시 개발 정책이 서울 시민의 불행 연관어로 나타났으며 또한 쓰레기, 북한산, 둘레길 등의 연관어로 보아 환경적 요소도 불행 연관어로 나타남
- 페스티벌, 초과근무 키워드를 통하여 문화활동 참여와 장시간 근로가 불행 연관어

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고독사 키워드를 통하여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불행 연관어로 나타남

(2) 토픽 모델링 분석

- 행복 혹은 불행 토픽의 각 영역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행복 토픽은 가정 환경, 식생활, 문화여가, 여행 영역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불행 토픽은 주거, 교육, 정치, 여행 영역에 주로 등장함



참고문헌

서울연구원, 2015, 「2014 서울시민의 행복 체감도와 행복지표 활용방안」.



04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출근 직장인의 행복

- 1_서론
- 2_연구결과
- 3_출근시간 행복 증진 방안 및 시사점

연구책임	고준호	기획조정본부 연구조정실장
연구진	심아름	기획조정본부 기획팀 연구원
	이유미	기획조정본부 기획팀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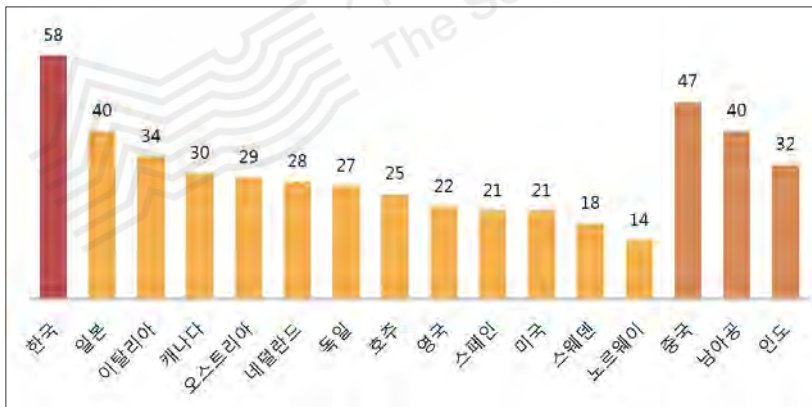
04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출근 직장인의 행복

1_서론

1) 연구배경

(1)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출근시간

- 직장인들에게 있어 출근은 하루의 시작이며 매우 일상적인 활동으로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
- 특히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출근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
 -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통근시간은 평균 58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통근시간인 28분의 2배가 넘는 수치이며 함께 조사된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보다 높은 수준(OECD,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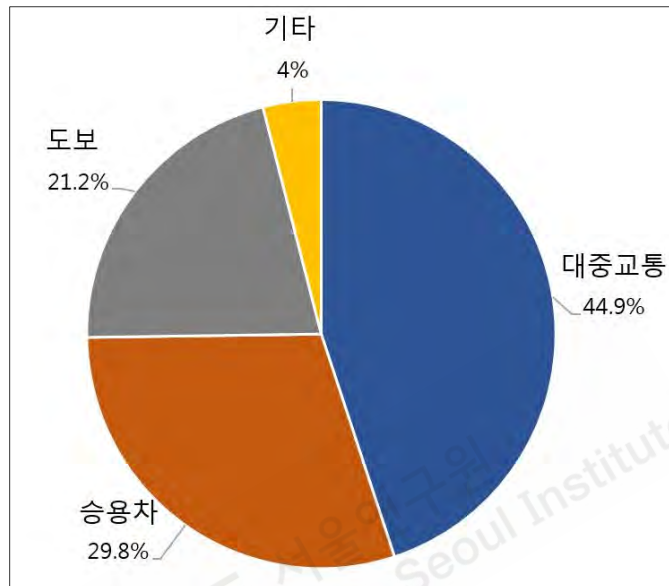
자료: 2016 OECD 성별데이터포털

[그림 4-1] OECD 주요국 평균 통근 시간(단위: 분)

(2)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통행수단인 대중교통

-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통행수단 중 대중교통 분담률이 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서울시 주요교통통계, 2015)

- 대중교통은 출근시간에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통행수단. 서울시민이 출근에 이용하는 통행수단은 대중교통이 44.9%, 승용차가 29.8%, 도보가 21.2%, 택시·자전거 등 기타 수단이 4%를 차지(인구총조사, 2015)



자료: 2015 인구총조사

[그림 4-2] 서울시민 출근 통행수단

2) 선행연구 검토

(1)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출근시간

- 출근시간은 심신의 건강, 직장생활, 그리고 대인관계의 질을 저하시킴으로써 삶의 질과 행복에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출근시간은 스트레스, 긴장, 불안, 적대감을 야기(Koslowsky et al., 2013; Evans & Wener, 2006)
 - 통근시간이 늘어날수록 고혈압과 비만 가능성이 높고 심장혈관 적합도(CRF)가 떨어짐(Hoehner et al., 2012). 또한 장시간 출근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사망률이 54% 높음(Sandow et al., 2014)

- 출근시간은 업무수행 저하와도 관련. 출근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글을 교정하는 업무에서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Evans & Wener, 2006). 이는 출근시간이 업무 동기와 집중력을 떨어뜨림을 의미
- 출근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며 가족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혼율도 높음(Novaco & Collier, 1994; Sandow, 2011)

(2) 출근시간에 느끼는 행복

- 출근시간은 행복감이 매우 낮은 시간
 - Kahneman 등(2004)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5개의 일상생활 활동 중 통근 시간에 긍정적 정서를 가장 적게 느끼며 부정적 정서는 세 번째로 높게 느낌
 - Krueger 등(2009)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1개의 일상생활 활동 중 긍정적 정서에 비해 부정적 정서의 비율이 높은 활동은 첫 번째가 ‘일’, 두 번째가 ‘통근’으로 나타남. 특히 통근은 하루 중 차지하는 시간 비중은 낮은 편이었으나 그 시간 동안 느끼는 부정적 정서의 비율이 높았음
 - 우리나라 30대 남녀 직장인과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21개의 일상생활 활동 중 ‘출근/이동 중’에 느끼는 행복감이 두 번째로 낮음. 또한 ‘출근/이동 중’은 우울, 짜증, 분노가 두 번째로 높고 가장 피곤한 활동으로 나타남(장재운 외, 2007)
 -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뽑은 30개의 불행 관련 사건들 중 ‘출근길·등교길의 교통체증을 겪는 것’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불행 사건 2위를 차지(김범준, 2011)

(3) 대중교통은 다른 수단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통행 수단

- 낮은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 승용차 운전자보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 만족도가 더 낮음(Eriksson et al., 2013; Gatersleben & Uzzell, 2007)
 - 도보, 기차,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버스 중 이용 만족도가 가장 낮은 통행수단은 버스와 지하철(St-Louis et al., 2014)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할 때 느끼는 감정
 - 사람들은 집에 있을 때보다 통근할 때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느끼며, 이러한 부정적 감정의 차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근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남(Lancée et al., 2017)
 - 대중교통 이용자가 도보, 자전거, 승용차 이용자들에 비해 통근 시 즐거움을 가장 적게 경험(Páez & Whalen, 2010)
- 그러나 위 연구결과들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서울의 경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3)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목적

- 위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봤을 때, 아침부터 장시간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동안 직장인들의 행복감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
- 이러한 낮은 출근시간 행복은 삶 전체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행복의 원인에 대한 상향적(bottom-up) 접근에서는 인생의 경험들이 모여 행복을 결정한다고 봄. 이러한 삶의 경험 중 하나가 출근이므로 출근시간에 경험하는 행복이 삶 전체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서울시 직장인들의 출근 시 대중교통 이용 행태와 행복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출근시간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 이를 통하여 출근시간에 느끼는 행복을 높이고 나아가 삶의 전반적인 행복까지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온라인 패널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진행
 - 내용 : 행복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행 여건, 통행 만족도, 개인적 특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

- 대상 : 서울 소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1,000명의 직장인(서울 거주 600명, 인천·경기 거주 각 200명)
- 기간 : 2017년 8월 29일 ~ 9월 15일

○ 조사변인

- 행복 : 전반적인 인생의 행복과 출근시간에 느끼는 행복을 각각 단일문항으로 측정(7점 만점; 1=전혀 행복하지 않다; 7=매우 행복하다). 두 문항이 제시되는 순서는 무작위로 배치
- 직무만족 :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로서 하위요인은 조직구조 및 정책, 업무, 역할, 작업환경, 임금, 승진, 상사 및 동료관계 등으로 구성. 대부분의 직무만족 척도들은 문항 수가 많아 본 연구에서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단일문항의 경우 기존 다중문항 척도들과 상관이 높아 사용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Wanous et al.,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 담당업무, 임금, 대인관계의 네 가지 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단일문항으로 측정(7점 만점; 1=매우 불만족한다; 7=매우 만족한다)
- 성격 및 태도
 - 신경증적 성향 : 5가지 성격 요소(Big 5) 중 하나로서 정서적 불안정성을 의미함. 신경증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쉽게 경험. Big 5 성격 검사인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척도에서는 신경증적 성향을 10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설문 문항으로 불성실한 응답률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중복되는 문항들(예: '기분의 변화가 심하다'와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을 제거하고 총 5문항을 사용(7점 만점; 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 긍정적 인생관 : 개인이 인생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로 김명소 등(2003)이 개발한 행복한 삶 구성요인 척도 중 긍정적 인생관을 측정하는 3문항 사용(7점 만점; 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 객관적 출근여건 : 대중교통 이용 출근 현황(주 이용 교통수단, 출근경로 이용기간, 총 소요시간, 집에서 역까지 이동수단 및 시간, 역 대기시간, 역에서 직장까지 이동수단 및 시간, 환승횟수, 환승시간, 교통수단 내 혼잡도) 조사
- 주관적 출근여건 : 대중교통 이용 출근 만족도(출근 소요시간 만족도, 집에서 역까지 이동시간 및 여건 만족도, 역 대기시간 및 여건 만족도, 역에서 직장까지 이동시간 및 여건 만족도, 환승횟수 만족도, 환승시간 및 여건 만족도, 혼잡도 만족도, 좌석 확보 만족도, 교통수단의 안전·쾌적성·시설 만족도, 차내시간 활용도) 조사
- 인구사회학적 특성 : 거주지역, 직장 소재지역, 성별, 연령, 직업, 혼인여부, 주거형태, 가족 수, 자녀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수면시간, 자차 보유여부, 소득, 학력 조사



2_연구결과

1) 응답자 특성과 출근시간 행복

(1) 응답자 특성

- 서울 거주자 600명, 인천 거주자 200명, 경기도 거주자 200명
- 성별은 남성 50%, 여성 50%
- 연령은 20대가 19.8%, 30대가 22.0%, 40대가 23.9%, 50대가 21.6%, 60대가 12.7%로 40대가 가장 많음
- 결혼여부는 기혼이 60.8%, 미혼이 39.2%
-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1.6%, 100~200만 원이 13.2%, 200~300만 원이 24.0%, 300~400만 원이 17.0%, 400~500만 원이 15.5%, 500~600만 원이 11.5%, 600~700만 원이 6.7%, 700~800만 원이 4.5%, 800만 원 이상이 6.0%로,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소득자가 가장 많음
- 주 이용 교통수단은 지하철(전철)이 44.2%, 지하철+버스 환승이 35.5%, 버스 이용이 20.3%로 지하철(전철) 단일수단을 가장 많이 이용
- 직장 소재지는 도심 권역 16.6%, 서북 권역 10.6%, 동북 권역 11.6%, 서남 권역 30.0%, 동남 권역 31.2%로 동남 권역으로 가장 많이 출근¹⁾

[표 4-1] 전체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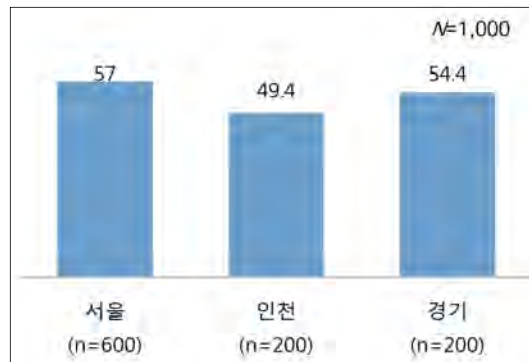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거주지역	서울	600	60.0
	인천	200	20.0
	경기	200	20.0
성별	남성	500	50.0
	여성	500	50.0

1) 서울시 5대 권역 구분은 다음과 같다. 도심 권역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북 권역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북 권역은 강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광진구, 도봉구, 성동구, 중랑구, 서남 권역은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동남 권역은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이다.

구분		사례수	비율(%)
연령	20대	198	19.8
	30대	220	22.0
	40대	239	23.9
	50대	216	21.6
	60대	127	12.7
결혼 여부	기혼	608	60.8
	미혼	392	39.2
소득	100만 원 미만	16	1.6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32	13.2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40	24.0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170	17.0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155	15.5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115	11.5
	6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67	6.7
	7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45	4.5
	800만 원 이상	60	6.0
주 이용 교통수단	버스	203	20.3
	지하철(전철)	442	44.2
	지하철+버스 환승	355	35.5
출근지역 (5대 권역)	도심 권역	166	16.6
	서북 권역	106	10.6
	동북 권역	116	11.6
	서남 권역	300	30.0
	동남 권역	312	31.2
전체		1,000	100.0

(2) 서울시민의 특성과 출근시간 행복

- 7점 척도로 측정된 행복도를 100점 만점 수치로 환산
- 서울 거주자의 출근시간 행복은 인천, 경기도 거주자에 비해 높은 편



[그림 4-3] 거주지역에 따른 출근시간 행복

- 서울시민이 출근시간에 느끼는 행복은 인생의 전반적 행복보다 약 12% 낮으며, 인생의 전반적 행복 변수의 약 1/3을 설명
- 인생의 전반적 행복은 65점, 출근시간 행복은 57점으로, 출근시간 행복이 인생의 전반적 행복보다 약 12%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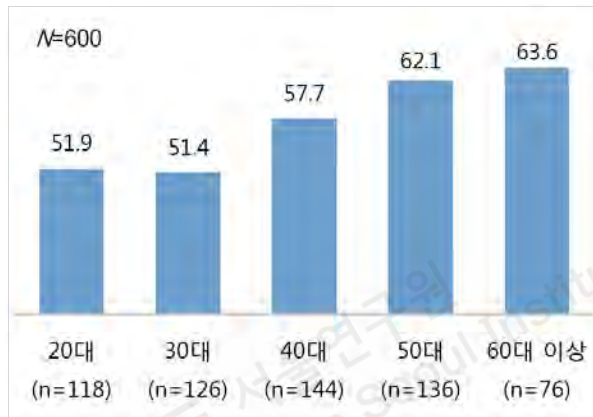


[그림 4-4] 인생의 전반적 행복과 출근시간 행복의 차이

- 출근시간 행복과 인생의 전반적 행복은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r=.55$, $p < .01$). 이는 출근시간에 행복한 사람일수록 인생이 전반적으로 행복함을 의미함. 또한 서울시민이 출근시간에 느끼는 행복은 인생의 전반적 행복 수준의 약 1/3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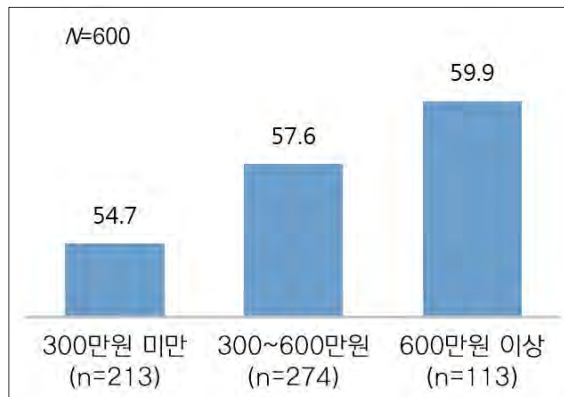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행복의 차이

- 성별의 경우 출근시간 행복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57점으로 차이가 없음
- 연령의 경우 출근시간 행복은 20대가 51.9점, 30대가 51.4점, 40대가 57.7점, 50대가 62.1점, 60대 이상이 63.6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근시간에 더 행복한 경향을 보임. 20대와 30대 연령집단이 40대 이상의 연령집단에 비해 약 14% 낮은 행복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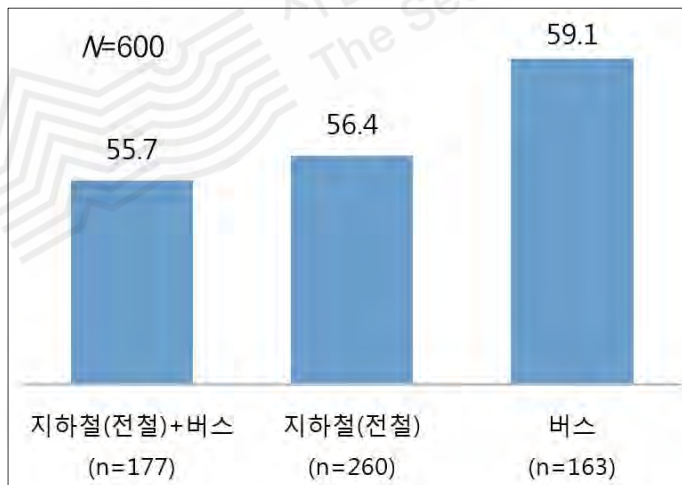
[그림 4-5] 연령에 따른 출근시간 행복

- 결혼여부의 경우 출근시간 행복은 미혼인 사람들(52점)이 기혼인 사람들(60점)에 비해 약 13% 낮음
- 자녀유무의 경우 출근시간 행복은 자녀가 없는 사람들(52.4점)이 자녀가 있는 사람들(60.4점)에 비해 약 13% 낮음
- 소득의 경우 출근시간 행복은 월소득 300만 원 미만 집단이 54.7점, 3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집단이 57.6점, 600만 원 이상 집단이 59.9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출근시간에 더 행복한 경향.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은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에 비해 출근시간 행복이 약 9% 낮음. 그러나 소득의 차이만큼 행복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님



[그림 4-6] 소득에 따른 출근시간 행복

- 주 이용 교통수단의 경우 출근시간 행복은 버스 이용자가 59.1점, 지하철(전철) 이용자가 56.4점, 지하철(전철)+버스 이용자가 55.7점으로 나타남. 즉 지하철에서 버스로 또는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하여 출근하는 사람은 지하철 또는 버스 단일수단만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 출근시간 행복도가 낮음



[그림 4-7] 이용 교통수단에 따른 출근시간 행복

2) 서울시민의 출근시간 행복 관련 요인 탐색

(1) 서울시민의 출근시간 행복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

- 직무만족, 출근 소요시간 만족도, 차내시간 활용도가 가장 높은 상관
 - 출근시간 행복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은 직무만족으로 나타남 ($r=.48, p<.01$). 즉 조직문화, 업무, 임금, 직장 대인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출근시간에 행복한 경향
 - 다음으로 출근 소요시간 만족도($r=.44, p<.01$)와 차내시간 활용도($r=.44, p<.01$)가 출근시간 행복과 높은 상관을 보임. 즉 출근 시 걸리는 시간에 만족하거나 대중교통 내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일수록 출근시간에 행복한 경향
 - 이 외에도 혼잡도 만족도, 긍정적 인생관, 주관적 건강수준, 환승시간 만족도, 좌석여건 만족도, 안전 만족도, 쾌적성 만족도 등이 출근시간에 느끼는 행복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객관적 출근여건과 출근시간 행복의 관계

- 출근에 더 적은 시간이 소요될수록,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덜 혼잡할수록, 환승을 적게 할수록 출근시간에 더 행복한 경향
 - 객관적 출근여건 중 출근 소요시간($r=-.20, p<.01$), 혼잡도($r=-.20, p<.01$), 환승 횟수($r=-.11, p<.01$)가 출근시간 행복과 음(-)의 상관관계 존재. 집-역 이동시간, 역 대기시간, 역-직장 이동시간, 환승시간은 출근시간 행복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없음

(3) 주관적 출근여건과 출근시간 행복의 관계

- 출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만족할수록, 환승하는 횟수와 소요시간에 만족할수록,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혼잡 정도에 만족할수록 출근시간에 더 행복한 경향
 - 주관적 출근여건 중 출근 소요시간 만족도($r=.44, p<.01$), 환승횟수 만족도($r=.38, p<.01$), 혼잡도 만족도($r=.36, p<.01$), 환승시간 만족도($r=.35, p<.01$), 역 대기시간 만족도($r=.23, p<.01$), 집-역 이동시간 만족도($r=.19,$

$p < .01$), 역-직장 이동시간 만족도($r = .15$, $p < .01$)가 출근시간 행복과 양(+)의 상관관계 존재

(4) 주관적 출근여건이 객관적 출근여건보다 출근시간 행복과 더 큰 관련

- 실제 통행여건보다는 그 통행여건에 대해 개인이 만족하는 정도가 출근시간 행복과 더 높은 상관을 보임
- 구체적으로, 실제 출근 소요시간보다는 소요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출근시간 행복과 더 큰 상관을 가지며, 교통수단 내 실제 혼잡 정도보다는 혼잡 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실제 환승 횟수보다는 환승 횟수에 대한 만족도가 출근시간 행복과 더 큰 상관을 보임. 또한 집에서 역으로 이동하는 시간, 역에서 대기하는 시간, 역에서 직장으로 이동하는 시간, 환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모두 출근시간 행복과 상관이 없었으나, 이들 요인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모두 출근시간 행복과 상관이 존재함



[표 4-2] 객관적 출근여건 및 주관적 출근여건과 출근시간 행복의 상관 1

	출근 시간 행복	소요 시간	소요 시간 만족도	혼잡도	혼잡도 만족도	환승 횟수	환승 횟수 만족도	환승 시간	환승 시간 만족도
출근시간 행복	-								
소요시간	-.20**	-							
소요시간 만족도	.44**	-.61**	-						
혼잡도	-.20**	.09**	-.16**	-					
혼잡도 만족도	.36**	-.17**	.35**	-.65**	-				
환승횟수	-.11**	.46**	-.33**	.19**	-.23**	-			
환승횟수 만족도	.38**	-.27**	.55**	-.22**	.44**	-.46**	-		
환승시간	-.05	.40**	-.26**	.03	-.16**	.44**	-.29**	-	
환승시간 만족도	.35**	-.35**	.57**	-.18**	.43**	-.34**	.71**	-.45**	-
평균	3.99	50.8(분)	4.50	3.17	4.23	0.75	4.39	8.2(분)	4.36
표준편차	1.26	19.44	1.44	1.39	1.38	0.74	1.29	5.54	1.40

* $p < .05$, ** $p < .01$, *** $p < .001$

주: 출근시간 행복과 주관적 출근여건(만족도) 변인은 7점 만점 척도로 측정

[표 4-3] 객관적 출근여건 및 주관적 출근여건과 출근시간 행복의 상관 2

	출근 시간 행복	집-역 시간	집-역 시간 만족도	역 대기시간	역 대기시간 만족도	역-직장 시간	역-직장 시간 만족도
출근시간 행복	-						
집-역 시간	-.04	-					
집-역 시간 만족도	.19**	-.48**	-				
역 대기시간	-.02	.12**	-.07*	-			
역 대기시간 만족도	.23**	-.12**	-.48**	-.40**	-		
역-직장 시간	.05	.22**	-.04	.16**	-.04	-	
역-직장 시간 만족도	.15**	-.11**	.39**	-.02	.42**	-.51**	-
평균	3.99	7.2(분)	5.27	5.1(분)	4.99	6.7(분)	5.08
표준편차	1.26	4.21	1.30	3.06	1.24	3.41	1.33

* $p < .05$, ** $p < .01$, *** $p < .001$

주: 출근시간 행복과 주관적 출근여건(만족도) 변인은 7점 만점 척도로 측정

3) 서울시민의 출근시간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심리적 요인, 통행여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회귀모형은 출근시간 행복 변량의 46.6%를 설명

- 출근시간 행복과 유의미한 상관이 존재하는 변수들을 투입하고 영향력이 낮은 변수들을 차례로 제외하여 최종모형 선택. 최종 회귀모형은 $\alpha = .05$ 수준에서 유의($F(12, 587) = 42.66, p < .001$)하며 출근시간 행복 변화량의 46.6%를 설명
- 출근시간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리적 요인, 통행여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모두 포함

(2)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들

- 심리적 요인 중 직무만족과 긍정적 인생관이 출근시간 행복에 영향
 -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직무만족이 1단위 증가하면 출근시간 행복도 0.48만큼 증가($b=0.479$, $se=0.045$, $p<.001$)
 -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긍정적 인생관이 1단위 증가하면 출근시간 행복도 0.12만큼 증가($b=0.116$, $se=0.050$, $p=.02$)
- 출근여건 중 출근 소요시간 만족도, 좌석여건 만족도, 출근경로 이용기간, 이용 교통수단, 혼잡도가 출근시간 행복에 영향
 -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출근 소요시간 만족도가 1단위 증가하면 출근시간 행복도 0.12만큼 증가($b=0.124$, $se=0.028$, $p<.001$)
 -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좌석에 앉아서 갈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1단위 증가하면 출근시간 행복도 0.09만큼 증가($b=0.087$, $se=0.029$, $p=.003$)
 -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출근경로 이용기간이 1년 증가하면 출근시간 행복도 0.03만큼 증가($b=0.026$, $se=0.009$, $p=.006$)
 -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혼잡도가 1단위 증가하면 출근시간 행복도 0.07만큼 감소($b=-0.072$, $se=0.031$, $p=.021$)
 -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이용 교통수단 간 출근시간 행복의 유의미한 차이 존재. 구체적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함께 이용할 경우 버스만 이용할 경우보다 출근시간 행복 감소($b=-0.116$, $se=0.085$, $p=.044$)
-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주관적 건강 상태, 연령, 결혼여부가 출근시간 행복에 영향
 -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주관적 건강 상태가 1단위 증가하면 출근시간 행복도 0.19만큼 증가($b=0.193$, $se=0.042$, $p<.001$)
 -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연령 간 출근시간 행복의 유의미한 차이 존재. 구체적으로 40대($b=0.224$, $se=0.111$, $p=.044$) 또는 50대($b=0.194$, $se=0.120$, $p=.106$; $\alpha=.10$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음), 60대 이상($b=0.472$,

se=0.139, $p=.001$)가 20대보다 출근시간 행복이 높음

-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에 출근시간 행복의 유의미한 차이 존재. 구체적으로 기혼인 사람들이 미혼인 사람들보다 출근시간 행복이 높음($b=0.145$, $se=0.097$, $p=.134$; $\alpha=.10$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음)

[표 4-4] 서울시민의 출근시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예측변인		B	β	p	VIF	
심리적 요인	직무만족	0.48***	.37	<.001	1.37	
	긍정적 인생관	0.12*	.08	.020	1.42	
통행여건	출근 소요시간 만족도	0.12***	.14	<.001	1.17	
	좌석여건 만족도	0.09**	.11	.003	1.55	
	출근경로 이용기간	0.03**	.09	.006	1.08	
	혼잡도	-0.07*	-.08	.021	1.37	
	지하철+버스 (준거: 버스)	-0.17*	-.06	.044	1.05	
개인적 특성	주관적 건강		0.19***	.16	<.001	1.37
	연령 (준거: 20대)	60대 이상	0.47**	.13	.001	1.50
		40대	0.22*	.08	.044	1.56
		50대	0.19	.07	.106	1.74
	기혼		0.14	.06	.134	1.52

* $p<.05$, ** $p<.01$, *** $p<.001$

3_출근시간 행복 증진 방안 및 시사점

1) 출근시간 행복 증진 방안

(1) 직무만족과 출근시간 행복

- 연구 결과, 직무만족은 출근시간 행복과 가장 관련이 높으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따라서 일터에서 느끼는 만족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 직장인들의 출근시간 행복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파급가설(spillover hypothesis)에 따르면 직무경험이 삶의 다른 영역에 일반화되거나 확장된다고 함(Seeman, 1967). 따라서 직무에서 경험하는 만족도가 높아질 때 출근시간에 느끼는 행복뿐 아니라 인생의 전반적 행복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임

(2) 대중교통 여건과 출근시간 행복

- 연구 결과 좌석여건, 혼잡도 등의 대중교통 여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행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좌석여건, 혼잡도, 환승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출근시간에 느끼는 행복도 증진 가능
 - 특히 객관적 통행여건보다는 이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더 중요하므로 직장인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

2) 시사점

(1) 왜 출근시간 행복을 높여야 하는가?

- 출근시간 행복 증진 정책을 통해 삶의 질과 전반적 인생의 행복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연구 결과, 출근시간 행복은 삶의 전반적 행복보다 낮았으며 삶의 전반적 행복과 관련이 있음
 - OECD에서도 웰빙 측정 지표에 통근시간을 포함할 정도로 출근은 삶의 질과

만족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

- 서울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출근 소요시간은 매우 길며,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혼잡함과 서서 가야 하는 환경으로 인해 출근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
- 그러나 이처럼 삶의 행복과 관계된 중요한 요인인 직장인들의 출근시간 행복은 그동안 연구와 정책에서 간과된 측면이 있음
- 이제는 직장인들이 출근시간에 느끼는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출근시간 행복이 높아진다면 삶의 질과 전반적인 인생의 행복감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



참고문헌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8권 2호, pp.415-442.
- 김범준, 2011, “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불행 관련 사건들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5권 1호, pp.115-135.
- 서울특별시, 2015, 『주요교통통계』.
- 장재운, 유경, 서은국, 최인철, 2007, “일상재구성법(DRM)을 통해 살펴본 남녀직장인과 주부의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1권 2호, pp.123-139.
- 통계청, 2015, 『2015 인구총조사』.
- Eriksson, L., Friman, M., & Gärling, T., 2013, “Perceived attributes of bus and car mediating satisfaction with the work commute”,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vol.47, pp.87-96.
- Evans, G. W., & Wener, R. E., 2006, “Rail commuting duration and passenger stress”, **Health Psychology**, vol.25, no.3, pp.408-412.
- Gatersleben, B., & Uzzell, D., 2007, “Affective appraisals of the daily commute: Comparing perceptions of drivers, cyclists, walkers, and users of public transport”, **Environment and behavior**, vol.39, no.3, pp.416-431.
- Hoehner, C. M., Barlow, C. E., Allen, P., & Schootman, M., 2012, “Commuting distance, cardiorespiratory fitness, and metabolic risk”,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vol.42, no.6, pp.571-578.
- Kahneman, D., Krueger, A. B., Schkade, D. A., Schwarz, N., & Stone, A. A., 2004, “A survey method for characterizing daily life experience: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Science**, vol.306, no.5702, pp.1776-1780.
- Koslowsky, M., Kluger, A. N., & Reich, M., 2013, “Commuting stress: Causes, effects, and methods of coping”,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Krueger, A. B., Kahneman, D., Schkade, D., Schwarz, N., & Stone, A. A., 2009, “National time accounting: The currency of lif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9-86.

Lancée, S., Veenhoven, R., & Burger, M., 2017, "Mood during commute in the Netherlands: What way of travel feels best for what kind of people?",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Novaco, R. W., & Collier, C., 1994, "Commuting stress, ridesharing, and gender: Analyses from the 1993 state of the commute study in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Transportation Center**.

Sandow, E., Westerlund, O., & Lindgren, U., 2014, "Is your commute killing you? On the mortality risks of long-distance commuting",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46, no.6, pp.1496-1516.

Sandow, E., 2011, "On the road: Social aspects of commuting long distances to work", **Doctoral dissertation**, Kulturgeografiska institutionen, Umeå universitet.

Seeman, M., 1967, "On the personal consequences of alienation in 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273-285.

St-Louis, E., Manaugh, K., van Lierop, D., & El-Geneidy, A., 2014, "The happy commuter: A comparison of commuter satisfaction across mode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traffic psychology and behaviour**, vol.26, pp.160-170.

Páez, A., & Whalen, K., 2010, "Enjoyment of commute: a comparison of different transportation mode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vol.44, no.7, pp.537-549.

Wanous, J. P., Reichers, A. E., & Hudy, M. J., 1997, "Overall job satisfaction: how good are single-item measur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82, no.2, pp.247-252.

[http://kosis.kr/\(국가통계포털\)](http://kosis.kr/(국가통계포털))

[http://www.oecd.org/gender/data/\(OECD성별데이터포털\)](http://www.oecd.org/gender/data/(OECD성별데이터포털))

※ 다음은 신체 건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4) 수면 시간: 하루 평균 _____ 시간

_____ 일

매우 건강하다

※ 다음은 개인의 성격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아래 문항을 읽고 각 단어의 쌍이 당신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외향적인, 열정적인	1 - 2 - 3 - 4 - 5 - 6 - 7	
2) 비판적인, 논쟁하기 좋아하는	1 - 2 - 3 - 4 - 5 - 6 - 7	
3) 의지할 만한, 자기조절을 잘 하는	1 - 2 - 3 - 4 - 5 - 6 - 7	
4) 근심걱정이 많은, 마음이 쉽게 상하는	1 - 2 - 3 - 4 - 5 - 6 - 7	
5)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인, 단순하지 않은	1 - 2 - 3 - 4 - 5 - 6 - 7	
6) 말수가 적은, 조용한	1 - 2 - 3 - 4 - 5 - 6 - 7	
7) 공감을 잘 하는, 따뜻한	1 - 2 - 3 - 4 - 5 - 6 - 7	
8) 산만한, 부주의한	1 - 2 - 3 - 4 - 5 - 6 - 7	
9) 차분한, 정서적으로 안정된	1 - 2 - 3 - 4 - 5 - 6 - 7	
10) 틀에 박힌, 창의적이지 않은	1 - 2 - 3 - 4 - 5 - 6 - 7	
11) 성실한, 꼼꼼한	1 - 2 - 3 - 4 - 5 - 6 - 7	
12) 나태한, 게으른	1 - 2 - 3 - 4 - 5 - 6 - 7	

2. 아래 문항을 읽고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숫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만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 2 - 3 - 4 - 5 - 6 - 7	
2) 나는 좋은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1 - 2 - 3 - 4 - 5 - 6 - 7	
3)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 - 2 - 3 - 4 - 5 - 6 - 7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1 - 2 - 3 - 4 - 5 - 6 - 7	
5)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1 - 2 - 3 - 4 - 5 - 6 - 7	
6)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차니고 있다	1 - 2 - 3 - 4 - 5 - 6 - 7	
7)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1 - 2 - 3 - 4 - 5 - 6 - 7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 2 - 3 - 4 - 5 - 6 - 7	
9) 나는 때때로 내가 정말 쓸모 없는 사람이 라고 느낀다	1 - 2 - 3 - 4 - 5 - 6 - 7	
10) 때때로 나에게 좋은 점이라곤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든다	1 - 2 - 3 - 4 - 5 - 6 - 7	

3. 아래 문항을 읽고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숫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는 실패를 피하는 것이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욱 의미 있다	1 - 2 - 3 - 4 - 5 - 6 - 7	
2) 나에게는 좋은 결과를 얻는 것보다 나쁜 결과를 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1 - 2 - 3 - 4 - 5 - 6 - 7	
3) 나에게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실패를 피하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다	1 - 2 - 3 - 4 - 5 - 6 - 7	
4) 나에게는 나쁜 결과를 피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우선이다	1 - 2 - 3 - 4 - 5 - 6 - 7	

※ 다음은 가정 생활 및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함께 거주 중인 가족 구성원: _____명 (본인 포함)

2. 현재 혼인 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별거

2-1) (기혼의 경우) 혼인 기간: _____년

3. 가정 생활 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관계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해당하는 숫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매우 만족스럽다
1) 아버지	1 - 2 - 3 - 4 - 5 - 6 - 7	
2) 어머니	1 - 2 - 3 - 4 - 5 - 6 - 7	
3) (기혼의 경우) 시아버지 또는 장인	1 - 2 - 3 - 4 - 5 - 6 - 7	
4) (기혼의 경우) 시어머니 또는 장모	1 - 2 - 3 - 4 - 5 - 6 - 7	

4. 다음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입니다. 아래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표기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감정을 배우자에게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감정을 조절한다	1 - 2 - 3 - 4 - 5 - 6 - 7	
2)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배우자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1 - 2 - 3 - 4 - 5 - 6 - 7	
3) 나는 나의 감정을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는다	1 - 2 - 3 - 4 - 5 - 6 - 7	
4) 나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배우자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1 - 2 - 3 - 4 - 5 - 6 - 7	
5) 배우자는 자신의 감정을 나에게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감정을 조절한다	1 - 2 - 3 - 4 - 5 - 6 - 7	
6) 배우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나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1 - 2 - 3 - 4 - 5 - 6 - 7	
7) 배우자는 자신의 감정을 나에게 말하지 않는다	1 - 2 - 3 - 4 - 5 - 6 - 7	
8) 배우자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나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1 - 2 - 3 - 4 - 5 - 6 - 7	

5. 아래 문항을 읽고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숫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서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1 - 2 - 3 - 4 - 5 - 6 - 7	
2) 나에게서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것보다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1 - 2 - 3 - 4 - 5 - 6 - 7	

6. 아래 문항을 읽고 각 항목이 자신과 배우자의 관계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는 좋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1 - 2 - 3 - 4 - 5 - 6 - 7	
2) 나와 배우자의 관계는 매우 안정적이다	1 - 2 - 3 - 4 - 5 - 6 - 7	
3) 우리의 결혼 생활은 견고하다	1 - 2 - 3 - 4 - 5 - 6 - 7	
4) 배우자와의 관계는 날 행복하게 한다	1 - 2 - 3 - 4 - 5 - 6 - 7	
5) 나는 배우자가 내 편이라고 느낀다	1 - 2 - 3 - 4 - 5 - 6 - 7	
6)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나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	1 - 2 - 3 - 4 - 5 - 6 - 7	

7. 다음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입니다. 아래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표기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1 - 2 - 3 - 4 - 5 - 6 - 7	
2) 나의 배우자는 평소에 나를 잘 챙겨준다	1 - 2 - 3 - 4 - 5 - 6 - 7	
3) 내 배우자는 나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헤아려준다	1 - 2 - 3 - 4 - 5 - 6 - 7	

8. 아래 문항을 읽고 각 단어의 쌍이 당신의 배우자를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외향적인, 열정적인	1 - 2 - 3 - 4 - 5 - 6 - 7	
2) 비판적인, 논쟁하기 좋아하는	1 - 2 - 3 - 4 - 5 - 6 - 7	
3) 의지할 만한, 자기조절을 잘 하는	1 - 2 - 3 - 4 - 5 - 6 - 7	
4) 근심걱정이 많은, 마음이 쉽게 상하는	1 - 2 - 3 - 4 - 5 - 6 - 7	
5)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인, 단순하지 않은	1 - 2 - 3 - 4 - 5 - 6 - 7	
6) 말수가 적은, 조용한	1 - 2 - 3 - 4 - 5 - 6 - 7	
7) 공감을 잘 하는, 따뜻한	1 - 2 - 3 - 4 - 5 - 6 - 7	
8) 산만한, 부주의한	1 - 2 - 3 - 4 - 5 - 6 - 7	
9) 차분한, 정서적으로 안정된	1 - 2 - 3 - 4 - 5 - 6 - 7	
10) 틀에 박힌, 창의적이지 않은	1 - 2 - 3 - 4 - 5 - 6 - 7	
11) 성실한, 꼼꼼한	1 - 2 - 3 - 4 - 5 - 6 - 7	
12) 나태한, 게으른	1 - 2 - 3 - 4 - 5 - 6 - 7	

※ 다음은 가사분담과 집안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평소 가정에서 전반적인 집안일(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예: 집안 청소, 빨래, 음식 만들기, 설거지, 노인 및 어린이 돌보기 등)

나	배우자	가사도우미	그 외 가족	기타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2. 다음은 평균적인 집안일 횟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	배우자
1) 일주일 평균 집안 청소 횟수	일주일 평균 _____회	일주일 평균 _____회
2) 일주일 평균 식사 준비 횟수	일주일 평균 _____회	일주일 평균 _____회

3. 당신은 집에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식사를 하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 평균 집에서 식사하는 횟수	_____회	_____회	_____회

4. 다음은 배우자가 준비하는 식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해당하는 숫자에 표기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배우자가 준비하는 식사는 맛있다	1 - 2 - 3 - 4 - 5 - 6 - 7	
2) 배우자가 준비하는 식사는 정성이 들어간 있다	1 - 2 - 3 - 4 - 5 - 6 - 7	
3) 나는 배우자가 준비하는 식사에 대해 만족한다	1 - 2 - 3 - 4 - 5 - 6 - 7	

5. 다음은 평상시 집안 청결 및 정리 정돈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해당하는 숫자에 표기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집안은 깨끗하다	1 - 2 - 3 - 4 - 5 - 6 - 7	
2) 우리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 정돈되어 있다	1 - 2 - 3 - 4 - 5 - 6 - 7	
3) 나는 우리 집안의 청결 및 정리 상태에 대해 만족한다	1 - 2 - 3 - 4 - 5 - 6 - 7	

※ 다음은 자녀의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사교육을 받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있다 / 없다]

2. 자녀별로 출생연도 및 성별, 한 달 평균 사교육 수업 개수 및 비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자녀 구분	출생연도	성별	2-1) 사교육 수업 개수	2-2) 한 달 사교육 비용
1	_____년	남 / 여	_____개	_____만 원
2	_____년	남 / 여	_____개	_____만 원
3	_____년	남 / 여	_____개	_____만 원
4	_____년	남 / 여	_____개	_____만 원

2-1) 자녀별 사교육(예: 과외, 학원, 학습지, 유료 인터넷 강의 등) 수업 개수

2-2) 자녀별 한 달 평균 사교육 비용(예: 20만 원일 경우 20 작성)

3. 다음은 자녀 사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1 --- 2 --- 3 --- 4 --- 5 --- 6 --- 7	
2) 나는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 --- 2 --- 3 --- 4 --- 5 --- 6 --- 7	
3) 나는 사교육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1 --- 2 --- 3 --- 4 --- 5 --- 6 --- 7	

4. 당신은 자녀의 공교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2-----3-----4-----5-----6-----7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 다음은 직장 생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직업:

-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업어업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학생 ⑪ 주부
 ⑫ 무직 ⑬ 기타: _____

1-1) 고용 형태:

-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 및 일용 근로자 ③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④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⑥ 기타: _____

1-2) 근무 시간: ① 전일제 ② 시간제 ③ 기타: _____

2. 하루 평균 근무 시간: 하루 평균 _____ 시간 (식사 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

3. 지난 1년 동안 사용한 총 휴가 일수: _____ 일

4. 직장 출근 또는 퇴근 시 총 소요 시간(편도): _____ 분

5. 출퇴근 시 주 이용 교통 수단

- ① 도보 ② 자전거 ③ 오토바이 ④ 버스 ⑤ 지하철(철도) ⑥ 버스+지하철
 ⑦ 택시 ⑧ 승용차 ⑨ 기타: _____

6. 직장 생활 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해당하는 숫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1) 조직 문화	1 - 2 - 3 - 4 - 5 - 6 - 7		3) 현재 담당 업무	1 - 2 - 3 - 4 - 5 - 6 - 7	
2) 급여	1 - 2 - 3 - 4 - 5 - 6 - 7		4) 직장 내 대인관계	1 - 2 - 3 - 4 - 5 - 6 - 7	

※ 다음은 행복 및 정신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지난 한 달 동안 아래 제시된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해당하는 숫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느끼지 않았다	항상 느꼈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	항상 느꼈다
1) 부정적인	1 - 2 - 3 - 4 - 5 - 6 - 7		7) 행복한	1 - 2 - 3 - 4 - 5 - 6 - 7	
2) 긍정적인	1 - 2 - 3 - 4 - 5 - 6 - 7		8) 슬픈	1 - 2 - 3 - 4 - 5 - 6 - 7	
3) 좋은	1 - 2 - 3 - 4 - 5 - 6 - 7		9) 두려운	1 - 2 - 3 - 4 - 5 - 6 - 7	
4) 나쁜	1 - 2 - 3 - 4 - 5 - 6 - 7		10) 즐거운	1 - 2 - 3 - 4 - 5 - 6 - 7	
5) 유쾌한	1 - 2 - 3 - 4 - 5 - 6 - 7		11) 화난	1 - 2 - 3 - 4 - 5 - 6 - 7	
6) 불쾌한	1 - 2 - 3 - 4 - 5 - 6 - 7		12) 만족스러운	1 - 2 - 3 - 4 - 5 - 6 - 7	

2. 아래의 문항을 읽고 평소에 당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해당하는 숫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1)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1 — 2 — 3 — 4 — 5 — 6 — 7	
2) 나의 삶의 조건들은 매우 훌륭하다	1 — 2 — 3 — 4 — 5 — 6 — 7	
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1 — 2 — 3 — 4 — 5 — 6 — 7	
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1 — 2 — 3 — 4 — 5 — 6 — 7	
5) 만약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 해도,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1 — 2 — 3 — 4 — 5 — 6 — 7	

3. 지난 한 달 동안 아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경험하셨습니까?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항상 경험했다
1) 돈 / 재정상태	1 — 2 — 3 — 4 — 5 — 6 — 7	
2) 업무 / 직장생활	1 — 2 — 3 — 4 — 5 — 6 — 7	
3) 인간관계	1 — 2 — 3 — 4 — 5 — 6 — 7	

4. 다음은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한 주 동안 당신이 경험한 감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4개의 보기 중 당신의 감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보기에 표시해주십시오.

1)		5)	
나는 슬프지 않다	0	나는 특별히 마음이 꺼림칙하거나 하지 않는다	0
나는 슬프다	1	나는 좋은 시간을 보낼 때면 마음이 꺼림칙하다	1
나는 항상 슬프고, 이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	2	나는 대부분의 시간에 마음이 꺼림칙하다	2
나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 불행하다	3	나는 항상 마음이 꺼림칙하다	3
2)		6)	
나는 미래에 대해 특별히 좌절하거나 하지 않는다	0	나는 내가 벌 받을 것이라 느끼지 않는다	0
나는 미래에 대한 의욕이 없다	1	나는 아마 벌 받을지도 모른다	1
나에게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2	나는 벌 받을 것이다	2
나는 미래는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나아질 것이 없다고 느낀다	3	나는 지금 벌 받고 있는 것이다	3
3)		7)	
나는 실패할 것 같지 않다	0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지 않는다	0
나는 평균보다 많이 실패하는 것 같다	1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실망스럽다	1
내 삶을 돌아보면 온통 생각나는 것은 실패뿐이다	2	나는 나 자신이 역겹다	2
나는 내가 인간으로서 실패했다고 느낀다	3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3
4)		8)	
나는 일상적인 것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느낀다	0	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못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0
나는 일상적인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1	나는 나의 단점이나 실패에 대해 엄격하다	1
나는 더이상 어떤 것에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없다	2	나는 나의 잘못들에 대해 항상 자책한다	2
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불만족 또는 지루함을 느낀다	3	나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 항상 자책한다	3

9)		14)	
나는 자살 생각이 전혀 없다	0	나는 내가 전보다 못생겨 보인다고 생각지 않는다	0
나는 자살 생각은 있지만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1	나는 내가 못생겨 보일까 걱정된다	1
나는 자살하고 싶다	2	나는 내가 점점 못생겨지는 것 같다	2
나는 기회만 되면 자살할 것이다	3	나는 내가 못생겼다고 여긴다	3
10)		15)	
나는 보통 때에 비해 더 울거나 하지 않는다	0	나는 언제나처럼 일할 수 있다	0
나는 요즘 들어 전보다 더 운다	1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전보다 더 노력이 필요하다	1
나는 요즘 들어 항상 운다	2	나를 심하게 밀어붙여야만 무언가 할 수 있다	2
나는 전에는 울 수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다	3	나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3
11)		16)	
나는 전보다 더 짜증이 나거나 하지 않는다	0	나는 언제나처럼 잘 수 있다	0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난다	1	나는 전처럼 잘 자지 못한다	1
나는 요즘 들어 항상 짜증이 난다	2	나는 보통 때보다 1-2시간 일찍 일어나고 다시 잠드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2
나는 전에는 나를 짜증나게 했던 것들에 대해 전혀 짜증나지 않는다	3	나는 보통 때보다 2시간 이상 일찍 일어나고 다시 잠들지 못한다	3
12)		17)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다	0	나는 보통 때보다 더 피곤하거나 하지 않다	0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적다	1	나는 전보다 더 많이 피곤해진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다	2	나는 무슨 일을 하든 피곤해진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다	3	나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3
13)		18)	
나는 가능하다면 내가 직접 결정한다	0	나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입맛이 좋다	0
나는 결정 내리는 것을 전보다 더 미룬다	1	나는 요즘 보통 때처럼 입맛이 좋지 않다	1
나는 결정을 내리는 일에 대해 전보다 더 어려움을 느낀다	2	나는 요즘 입맛을 많이 잃었다	2
나는 더 이상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3	나는 입맛이 전혀 없다	3

19)		21)	
최근에 내 체중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0	나는 요즘 성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0
나는 2kg 이상 빠졌다	1	나는 전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1
나는 5kg 이상 빠졌다	2	나는 전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2
나는 7kg 이상 빠졌다	3	나는 성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3
※ 나는 체중감량을 위한 다이어트 중이다. YES / NO			
20)			
나는 내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걱정하거나 하지 않는다	0		
나는 몸이 쑤시거나 배가 아프거나 변비가 있는 등의 신체적 문제들이 걱정된다	1		
나는 다른 것에 많은 신경을 쏟기 힘들 정도로 내 신체적 문제들이 걱정된다	2		
나는 다른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신체적 문제들이 걱정된다	3		

※ 다음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남자 / 여자)

2. 연령: 만 _____ 세

3. 현 거주지:

- (1) 강남구 (2) 강동구 (3) 강북구 (4) 강서구 (5) 관악구 (6) 광진구
 (7) 구로구 (8) 금천구 (9) 노원구 (10) 도봉구 (11) 동대문구 (12) 동작구
 (13) 마포구 (14) 서대문구 (15) 서초구 (16) 성동구 (17) 성북구 (18) 송파구
 (19) 양천구 (20) 영등포구 (21) 용산구 (22) 은평구 (23) 종로구 (24) 중구
 (25) 중랑구

4. 종교: ① 없음/무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기타: _____

5. 학력:

- ① 학교교육을 안 받았음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 졸업 ⑥ 대학교 졸업 ⑦ 대학원 졸업

6. 현 거주지 형태:

- ① 아파트 ② 단독주택 ③ 다세대주택 ④ 연립주택/빌라 ⑤ 고시원/하숙
⑥ 오피스텔 ⑦ 기타

7. 주거 점유 형태:

- ① 자가 ② 전세(월세 없음)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사글세 ⑥ 무상(관사, 사택 등) ⑦ 기타

8. 세금 납부 전 월 평균 총 개인 소득은 얼마입니까? 자신의 모든 월 수입(급여, 임대 소득, 이자 수입, 연금 등)을 합한 금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_____ 원

9. 세금 납부 전 월 평균 총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가족 구성원의 모든 월 수입(급여, 임대 소득, 이자 수입, 연금 등)을 합한 금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_____ 원

10. 가정의 총 자산(부동산, 주식/채권, 예금/적금 등) 금액: _____ 원

11. 가정의 총 부채(대출) 금액: _____ 원

12. 가정의 월 평균 부채로 인한 지출 비용(이자 및 원금 상환 금액): _____ 만 원

13. 당식은 전반적으로 가정의 현재 재정 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2-----3-----4-----5-----6-----7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14.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2-----3-----4-----5-----6-----7-----8-----9-----10
 최하층최상층

2_설문지 :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출근 직장인의 행복

출근 시 대중교통 이용 현황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GRI리서치입니다.

저희는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서울시 직장인의 출근 시 대중교통 이용에 관련된 연구의 일환으로 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13조에 의거해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주시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7월

선정 질문

【선문1】 귀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출근 시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은?(1일 기준)

(☐ 쿼터 체크)

- ① 버스 ② 지하철(전철) ③ 지하철(전철)+버스 환승
 ④ 승용차(☐ 조사 중단) ⑤ 택시(☐ 조사 중단) ⑥ 도보(☐ 조사 중단)
 ⑦ 기타(☐ 조사 중단)

【선문1-1】 (선문1에서 ‘③ 지하철(전철)+버스 환승’ 응답자만) 귀하께서 출근 시 지하철(전철)과 버스를 환승 이용할 때, 지하철(전철)과 버스의 탑승 시간은 몇 분 정도입니까?

지하철(전철)()분 / 버스 ()분

【선문2】 귀하의 거주 지역은? (☐ 쿼터 체크)

(지역을 단계적으로 나열해서 선택할 수 있게 구성)

()시 ()구/군 ()동

☐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만 진행, ☐ 그 이외의 지역 조사 중단

【선문3】 귀하의 직장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지역을 단계적으로 나열해서 선택할 수 있게 구성)

()시 ()구/군 ()동

☐ 서울 이외 지역은 조사 중단

【선문4】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 쿼터 체크

【선문5】 귀하의 연령은? _____세 (☐ 20세 미만 및 65세 이상은 조사 중단)

(☐ 쿼터 체크)

① 20 ~ 24세

② 25 ~ 29세

③ 30 ~ 34세

④ 35 ~ 39세

⑤ 40 ~ 44세

⑥ 45 ~ 49세

⑦ 50 ~ 54세

⑧ 55 ~ 59세

⑨ 60 ~ 69세

【선문6】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학생 (☐ 조사 중단)

② 전업주부/무직 (☐ 조사 중단)

③ 전문직/기술직(교원, 체육인, 연예인 및 종교 관련 종사자 포함)

④ 행정/사무/관리직

⑤ 판매직(통신판매종사자, 모델 및 홍보종사자 포함)

⑥ 서비스직(소방관, 경찰관, 수사관, 미용사, 조리사 포함)

⑦ 농업/어업/수산업 ⑧ 생산/운수/일반노무자 ⑨ 기타(군인 등) ⑩ 자영업

I. 생활 행태 및 만족도

【문1】 다음은 귀하의 행복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의 내용별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1점~7점 사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행복도 관련 항목	전혀 행복하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행복하다						
【1】	나의 전반적인 인생은	1	2	3	4	5	6	7
【2】	나는 출근 시간 동안에	1	2	3	4	5	6	7

【문2】 다음은 직장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내용별로 얼마나 만족하시느지를 1점~7점 사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족도 관련 항목	매우 불만족 한다	←	보통 이다	→	매우 만족 한다		
【1】	현재 내가 근무하는 직장의 조직문화	1	2	3	4	5	6	7
【2】	현재 내가 직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1	2	3	4	5	6	7
【3】	현재 내가 직장에서 받는 임금	1	2	3	4	5	6	7
【4】	현재 나의 직장 내 대인관계	1	2	3	4	5	6	7

【문3】 다음은 평상시 행동 및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내용별로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1점~7점 사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행동 및 태도 관련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1	2	3	4	5	6	7
【2】	나는 근심걱정이 많다.	1	2	3	4	5	6	7
【3】	나는 화를 잘 내는 편이다.	1	2	3	4	5	6	7
【4】	나는 이해가 빠른 편이다.	1	2	3	4	5	6	7
【5】	나는 우울함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6	7
【6】	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편이다.	1	2	3	4	5	6	7
【7】	나는 차분한 편이다.	1	2	3	4	5	6	7
【8】	나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1	2	3	4	5	6	7
【9】	나는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다.	1	2	3	4	5	6	7
【10】	나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1	2	3	4	5	6	7
【11】	나는 특별히 욕심 내지 않고 긍정적으로 산다.	1	2	3	4	5	6	7
【12】	물건 사용 후 제자리에 두는 것을 잘 잊는다.	1	2	3	4	5	6	7
【13】	나는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쉽게 만족하는 편이다.	1	2	3	4	5	6	7

II. 출근 시 대중교통 이용 실태

【문1】 현재의 출근경로를 얼마나 오래 이용하셨습니까? (ex: 4개월 / 2년 / 3년 6개월 등)

① ()년 ()개월 / ② 1개월 미만인 경우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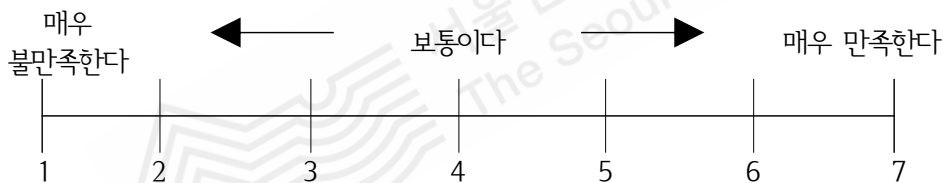
【문2】 출근 시 집에서 첫 정류장(역)까지 이동하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도보(걸어서) ② 승용차 ③ 자전거(전자자전거 포함)
④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⑤ 기타()

【문2-1】 출근 시 집에서 첫 정류장(역)까지 이동하는 데 몇 분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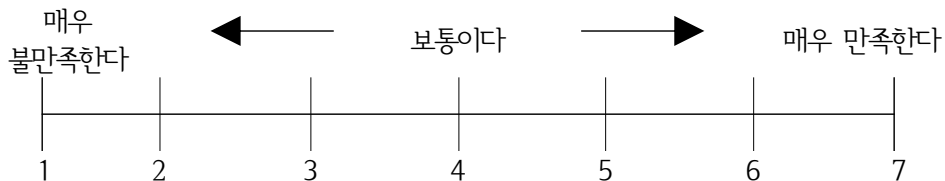
【문2-2】 출근 시 집에서 첫 정류장(역)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및 통행여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3】 출근 시 도착한 첫 정류장(역)에서 교통수단 탑승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대략 몇 분
있니까?

()분

【문3-1】 출근 시 도착한 첫 정류장(역)에서 교통수단 탑승까지 기다리는 시간 및 대기장소의 여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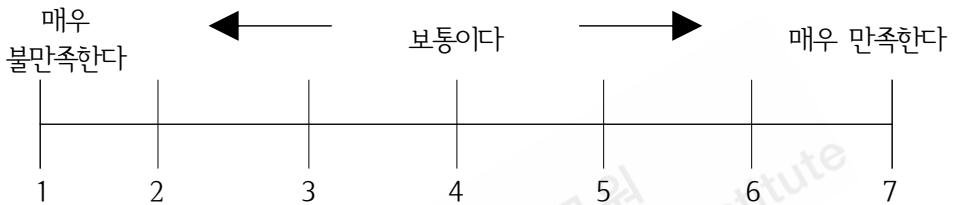
【문4】 최종 정류장(역)에서 직장까지 이동하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도보(걸어서) ② 승용차 ③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④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⑤ 기타()

【문4-1】 최종 정류장(역)에서 직장까지 이동하는 데 몇 분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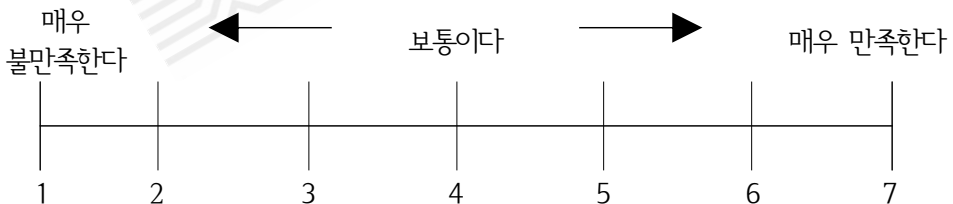
【문4-2】 최종 정류장(역)에서 직장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및 통행여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5】 귀하의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갈아타는 횟수는 몇 회입니까?

()회

【문5-1】 귀하의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갈아타는 횟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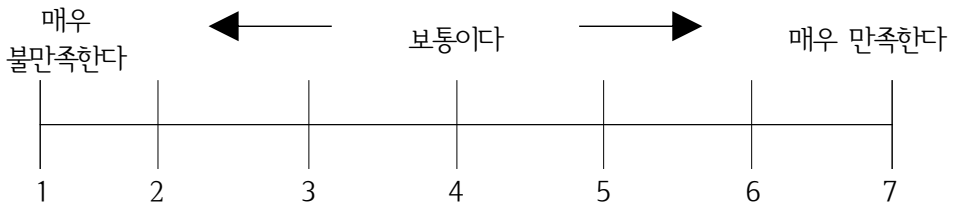
☞ 【문5】에서 갈아타는 횟수가 0회인 경우는 【문7】로 이동

【문6】 귀하의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갈아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몇 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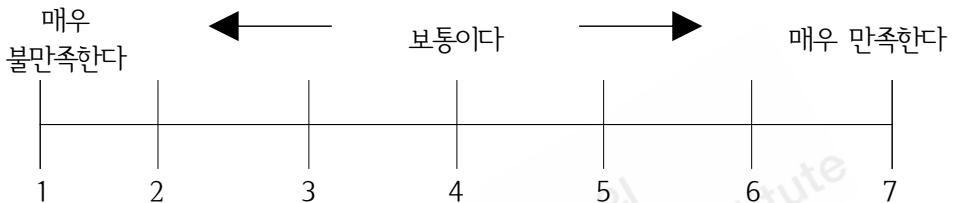
갈아타는 횟수가 여러 번일 경우는 모두 포함해서 적어주십시오. 갈아타는 시간에는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총 ()분

【문6-1】 귀하의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갈아타는 데 걸리는 시간 및 환승 여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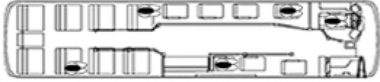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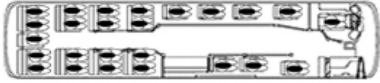






【문7】 출근길 차량 내 좌석에 앉아서 갈 수 있는 여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8】 아래의 그림을 보시고, 평상시 출근길에 이용하시는 대중교통수단의 평균적인 혼잡상태와 만족도를 표에 체크해 주십시오(환승하는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교통수단 모두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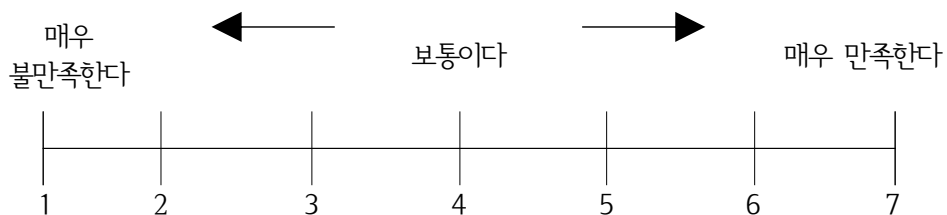
구 분	혼잡도	혼잡상황	지하철 내 혼잡 정도
혼잡도1	10%	한산하며, 앞을 좌석이 있음	
혼잡도2	34%	앞을 좌석은 없지만, 지하철 안은 한가함	
혼잡도3	70%	앞을 좌석이 없으며, 지하철 내에 어느 정도 사람이 있음	
혼잡도4	100%	앞을 좌석이 없으며, 살짝 부딪힐 정도로 약간 혼잡함	
혼잡도5	150%	앞을 좌석이 없으며, 매우 혼잡함	
혼잡도6	230%	앞을 좌석이 없으며,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혼잡함	

구 분	혼잡도	혼잡상황	버스 내 혼잡 정도
혼잡도1	10%	한산하며, 앉을 좌석이 있음	
혼잡도2	34%	앉을 좌석은 없지만, 버스 안은 한가함	
혼잡도3	70%	앉을 좌석이 없으며, 버스 내에 어느 정도 사람이 있음	
혼잡도4	100%	앉을 좌석이 없으며, 약간 혼잡함. 살짝 부딪힐 정도	
혼잡도5	150%	앉을 좌석이 없으며, 매우 혼잡함	
혼잡도6	230%	앉을 좌석이 없으며, 매우 혼잡함. 움직일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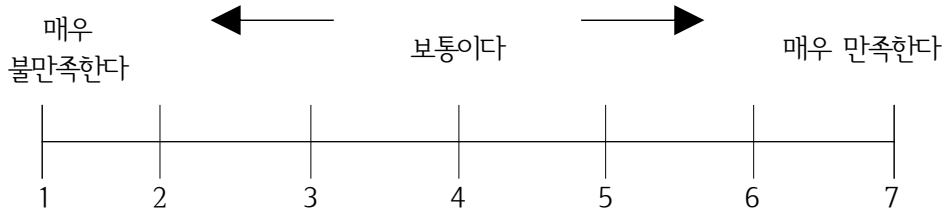
(응답란)

	이용 교통수단	혼잡도 (번호)	만족도						
			매우 불만족	보통					매우 만족
1번째 교통수단	① 버스 ② 지하철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번째 교통수단	① 버스 ② 지하철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번째 교통수단	① 버스 ② 지하철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번째 교통수단	① 버스 ② 지하철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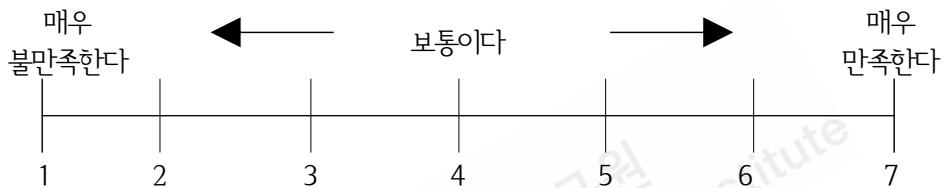
【문9】 귀하께서 출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안전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10】 귀하께서 출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차내 쾌적성(청결도 포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11】 귀하께서 출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시설(정류장, 역사, 안내 표지, 전광판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12】 귀하께서는 출근길에 차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Ⅲ. 일반 사항

【문1】 귀하의 현재 혼인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기혼 ② 미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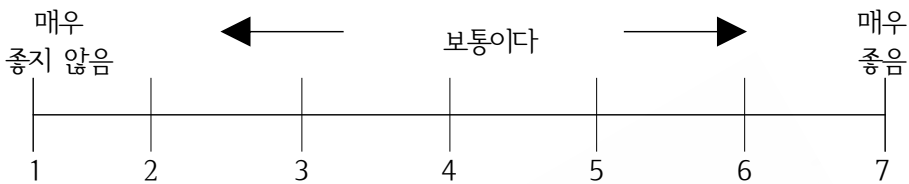
【문2】 귀하의 주거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아파트 ② 연립주택(빌라) ③ 다세대/다가구 주택
④ 단독주택 ⑤ 오피스텔 ⑥ 기타 ()

【문3】귀댁의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는 총 몇 명입니까? 그리고 자녀의 특성별 가족 수를 적어 주십시오.

[문3] 총 가족 수	[문3-1] 자녀 유무	[문3-2] 자녀의 연령	
() 명 ☞ 본인 포함 가족 수	① 자녀 있음 ② 자녀 없음	취학 전 아동	() 명
		초등학생	() 명
		중학생	() 명
		고등학생	() 명
		대학생 이상	() 명

【문4】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5】평상시 집에서의 1일 평균 수면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약 ()시간 ()분

【문6】귀댁에는 본인이 필요시 운전 가능한 자가용 승용차를 몇 대 보유하고 계십니까?
()대

【문7】귀하 개인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 정도입니까? ☞ 제세공과금 포함

- ① 100만 원 이하 ② 100만 원 ~ 200만 원 미만 ③ 200만 원 ~ 300만 원 미만
④ 300만 원 ~ 400만 원 미만 ⑤ 400만 원 ~ 500만 원 미만
⑥ 500만 원 ~ 600만 원 미만 ⑦ 600만 원 ~ 700만 원 미만
⑧ 700만 원 ~ 800만 원 미만 ⑨ 800만 원 이상

【문8】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중퇴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학교 중퇴 ⑤ 전문대학교 졸업 ⑥ 4년제 대학교 중퇴
⑦ 4년제 대학교 졸업 ⑧ 대학원 중퇴 ⑨ 대학원 졸업 이상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연 2017-PR-26

서울시민의
행복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발행인 _ 서왕진

발행일 _ 2017년 12월 31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